

#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러시아의 전쟁: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편집자의 글 이주연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4호 기획편집위원 4

특별기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동아시아: 유럽이 바라본 한반도	9
	니콜라 카사리니 블로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및 로마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러 수교 35년 평가와 전망: 새로운 관계를 위한 상호 인식의 노력	23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포커스 러시아의 전쟁과 한반도	갈등의 서래(西來): 19세기 영러 대결의 동진(東進)과 한반도의 지정학	32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적대에서 동맹으로: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러일 관계	47
이나바 치하루 메이조대학 교수		

	러시아의 백년 전쟁: 크림전쟁과 한국전쟁	60
옥창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정치학 전공 조교수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77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체험! 역사현장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지켜본 80주년 러시아 전승절	86
최인영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NAHF 톨아보기	한국과 베트남이 중국과 이웃한 역사를 말하다: 재단-베트남사회과학원 국제학술회의	96
	김철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새로운’ 과거의 ‘발견’이 주는 고민을 마주하다: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02
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Contents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14** Lee, Ju-yeon 4

### Guest Essays

**The Russia–Ukraine War and 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from a European Perspective** 9

Nicola Casarini

**Evaluation and Prospects of 35 Years of  
Korea–Russia Diplomatic Relations:  
Efforts for Mutual Recognition for a New Relationship** 23

Eom, Gu Ho

### Focus

#### Russia's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from the West:  
The Great Game and the Geopolitics of Korea** 32

Lee, Dong-uk

**Russo-Japanese Relations, 1905-1917** 47

INABA Chiharu

**The Hundred Years' War of Russia:  
The Crimean War and the Korean War** 60

Ok, Chang-joon

**Russia's Global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A Duet of Cooperation and Conflict** 77

Lee, Ju-yeon

###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Report from Red Square:  
Russia's 80th Victory Day Parade in Moscow (May 9)** 86

Choi, In-young

### NAHF's Topical Investigation

**Telling a History of Korea and  
Vietnam Neighboring China** 96

Kim, Chulki

**Facing the Pas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Honor of  
the 8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102

Hyun, Myung-ho

올해는 한러 수교 35주년으로 한러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러 수교 30주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념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의 영향으로 한러 관계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4강 외교의 대상국으로 분명히 경제, 정치, 외교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러시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는 역사 속에서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과 인식을 분석하고, 한러 관계 35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전망해 봤습니다.

니콜라 카사리니(Nicola Casarini)는 러우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우전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세력 사이 블록화를 가시화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우전쟁에 자국의 병력을 파병함에 따라 북러 관계가 밀접해졌고, 한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북중러 연대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사리니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긴장이 고조된 동아시아 상황을 대화와 외교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러우전쟁의 상황과 별도로 남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구호는 지난 35년간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한러 관계를 평가하고,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은 세 차례 공식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까지 격상했습니다. 문제는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과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북한 정권 보장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독립적이고 건설적인 한러 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제협력 분야에서 35년간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 성장은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크림반도(우크라이나명 크림반도) 병합, 러우전쟁 등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제협력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미리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한러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한러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기보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고, 러시아가 한국에 위협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동욱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충돌지역이라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부동항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반도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그레이트 게임은 조선의 개항에 영향을 미쳤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에 따라 을사늑약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역사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현재 진행 중인 러우전쟁이 한반도 갈등 상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나바 치하루(稲葉千晴)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러일 관계가 적대에서 동맹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피폐해진 경제 재건을 위해 남만주 개발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적이었던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907~1916년까지 네 차례의 러일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나바는 2차 협약을 통해 일본은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북만주에서 서로 우월적인 영향력을 인정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러일 관계의 개선이 일본의 한국 병합을 가능하게 했음을 강조합니다.

옥창준은 크림전쟁부터 한국전쟁까지 러시아가 치른 전쟁에 관해 설명합니다. 러시아는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부동항 확보를 중요시했고, 이것은 스탈린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타회담 합의에 따라 소련은 일본과 전쟁에 참전했고, 승리의 대가로 러일전쟁에서 잃은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아시아에서 미소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전투 개시에 동의하자 스탈린도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한국전쟁으로 부동항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중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옥창준은 작금의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마치 1950년 1~3월 국제정세 변화와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과거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라시아 지역의 상황을 냉철하게 읽어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주연은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의 ‘자주적 강대국 노선’ 대외정책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러시아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질서를 붕괴하고 국제사회의 다극화를 위해 서방과 대립하고, 비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협력이 불가능하다면 갈등을 발생시키는 러시아의 전략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 안정을 위해 민간, 지방, 의회 그리고 정상 차원의 회담까지 점진적으로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서술했습니다.

이번 호 「체험! 역사현장」에서는 최인영이 80주년 러시아 전승절 현장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작년 전승절 행사와 다르게 2025년 전승절 행사에는 국제프

레스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다양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가 참여하여 행사 규모가 작년과 비교하여 성대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전승절 행사에 큰 힘을 쏟은 이유는 무엇보다 러우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인영은 전승절 이후 양국이 여전히 혈맹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NAHF 톨아보기」에서 김철기는 재단과 베트남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김철기는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이웃한 역사적 경험이 공통으로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술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한중일의 역사갈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동북아 역사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현명호는 재단의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전체 25개 발표 중 외국인 학자 혹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의 발표가 13건 이었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외국 사료를 인용한 연구가 발표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들춰진 과거가 현재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깊은 대화와 입체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고민거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5년 전 한러 수교는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

---

## 편집자의 글

---

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러 관계는 그때와 비교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련 붕괴가 한국이 러시아를 적성국가에서 우호국가로 바꾸는 계기였다면, 러우전쟁을 계기로 다시 적성국가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가 러시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4호 기획편집위원  
이주연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동아시아

## 유럽이 바라본 한반도

니콜라 카사리니 블로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및 로마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은 유럽 대륙의 불안을 촉발하였다. 모스크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긴장은 냉전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고조되었다.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졌지만, 주요 강대국들이 각자 편을 정하는 데 따라 동북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존재했던 분열 구조(모스크바-베이징-평양 축과 워싱턴-도쿄-서울 동맹 간의 대립)가 재부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이들 경쟁 블록의 재등장이 불가역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는 러우전쟁의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이 일본·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용적 외교와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북한과의 대화도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을 피하는 그의 입장은 지역 내 보다 새롭고 평화로운 전망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러우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북아에서 두 경쟁 진영이 재부상한 이후,  
EU는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적극 지원하며  
한국·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가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원한 주요 국가로 지목된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제재를 가했다.

”

파괴적인 영향을 종식하거나 적어도 완화할 수 있다.

동북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은 미국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다. 그는 러우전쟁의 종결을 약속하고,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심지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만약 트럼프와 이재명이 동북아에서 대화와 외교를 진전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유럽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간도 열릴 것이다. 다만 이는 군사동맹인 NATO가 아닌 EU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북아에서 두 경쟁 진영이 재부상한 이후, EU는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적극 지원하며 한국·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가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원한 주요 국가로 지목된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NATO와의 관계 강화 정책을 추진하자, EU가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화해, 이웃 국가들과의 지역 협력·통합을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에 예전처럼 지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한

## 특별기고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2023. 11. 26.)

출처: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japan-china-trilateral-summit-5914cd54c2c3ce247d6872dd32a41dae>

국-중국-일본 간 삼각협력이 이러한 변화의 사례다.

최근 몇 년간 심화된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EU·NATO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강화하고 적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고조된 긴장과 상호 경쟁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상황은 머지않아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러우전쟁이라는 갈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기에 이제는 이를 넘어설 시점일 수 있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발표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중국-북한 축을 약화하거나 심지어 분열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  
트럼프와 이재명이 발표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중국-북한 축을 약화하거나 심지어 분열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

는 지역 주요 강대국이 대결보다 대화를 우선시하며 유럽의 전통적인 한반도 대화와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동아시아에서 구속력 있는 군사동맹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와 이재명이 냉전식 ‘경쟁 블록’ 사고방식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1. 동아시아에서 두 경쟁 블록의 재등장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이후 동북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긴장상태를 겪어 왔으며, 남북한 간의 대화와 화해 시도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의 시기도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러우전쟁의 발발은 일부 동북아시아 엘리트에게 국내 여론을 결집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기회로 여겨졌다. 2022년부터 갈등과 대립이 우위를 점하며 대화와 외교를 대체했다.

동아시아에서 두 경쟁 진영이 형성되는 첫 번째 계기는 2022년 2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몇 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제한 파트너십’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 약속은 202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양측이 전화 통화를 통해 재확인

---

## 특별기고

했다.<sup>1</sup>

두 번째 움직임은 대한민국과 북한 지도부가 중립을 버리고 특정 진영을 선택한 결정이다. 평양 정권은 러우전쟁을 이용해 모스크바와의 안보 및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푸틴-김정은 관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북한 군대가 러시아 군대와 함께 러우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정책을 역전시키고, 미국, 일본, NATO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은 서방 동맹이 푸틴 러시아를 패배시키거나 심각하게 약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평양과 서울 지도부의 결정은 결국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쟁 종료 이후 처음으로 남북은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대치하게 되었다.

## 2. 남북 대립

러우전쟁은 한반도 긴장의 대리전장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KN-23 미사일을 러시아의 공격에 투입하며 전투경험을 쌓고 고급 무기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 동시에 남한은 NATO 회원국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이를 우크라이나 군대에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병력 파견을 결정한 이후, 분쟁지역에 대한 첫 무

1 President of Russia,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Moscow, 4 February 2022(<http://www.en.kremlin.ru/supplement/5770>).

## 특별기고

기 수출을 검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상대방의 군사능력을 직접 시험하는 장이 되었다. 동시에 서울과 평양은 각자의 진영을 지지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강화했다.

북한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변함없이 지지해 왔다. 평양 정권은 2022년 2월 유엔총회 긴급회의에서 모스크바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였다. 모스크바를 지지한 다른 국가는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러시아였다.<sup>2</sup> 2023년 7월, 전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Sergei Shoigu)는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같은 해 9월 김정은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푸틴과 회담을 가졌다. 2024년 6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 국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상호 군사지원 조항(제4조)이 포함되어 약 1만 5,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Kursk) 전선에 파견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파견은 러시아군이 몇 달 전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영토를 되찾는 데 기여했으며, 이에 북한 외무상 최선희는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sup>3</sup>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쇼이구가 평양을 방문한 후, 2025년 6월 양측은 북한이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에 수천 명의 노

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RES/ES-11/1 General Assembly*, New York, adopted on 2 March 2022(<https://docs.un.org/en/A/RES/ES-11/1>).

3 Dmitry Antonov, ‘North Korea will back Russia until victory in Ukraine, foreign minister says’, *Reuters*, 1 November 2024(<https://www.reuters.com/world/north-korean-foreign-minister-arrives-moscow-talks-2024-11-01/>).

## 특별기고



푸틴-김정은 북러정상회담(2024. 6. 21.)

출처: <https://www.38north.org/2024/06/takeaways-from-the-kim-putin-summit/>

동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달 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들은 CNN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병력을 3배로 늘릴 계획이며, 추가로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 모스크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sup> 2025년 7월 12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평양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Sergey Lavrov)와 회담 중 러

<sup>4</sup> Nick Paton Walsh, Victoria Butenko, Gianluca Mezzofiore, Jo Shelley, Kosta Gak, Daria Tarasova-Markina and Yoonjung Seo, 'North Korea to send as many as 30,000 troops to bolster Russia's forces, Ukrainian officials say', *CNN*, 2 July 2025(<https://edition.cnn.com/2025/07/02/europe/north-korea-troops-russia-ukraine-intl-cmd>).

## 특별기고

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목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sup>5</sup>

북한은 병력과 노동자 외에도 포병 장비, 탄약, 심지어 미사일 등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 및 군사 기술 이전, 정보 공유,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 증가 및 밀과 기타 식량 제품 공급 확대 등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모스크바와의 관계 강화는 국제사회가 단일 국가에 적용한 가장 엄격한 제재하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평양 정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평양 정권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을 패배시켰으며, 미국군은 남부 지역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 건국 과정에서도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지원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냉전 기간 내내 가까운 동맹이었던 양국 관계는,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악화되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제재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다.

현재 모스크바와의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키고, 평양이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러우전쟁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격 후 안보 보장을 위해 핵 능력에 이전보다 더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풍계리(주요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지속하고, 서

5 ‘Russia’s Lavrov meets Kim Jong Un in North Korea with Ukraine war at fore’, *Al Jazeera*, 12 July 2025(<https://www.aljazeera.com/news/2025/7/12/russias-lavrov-meets-kim-jong-un-in-north-korea-with-ukraine-war-at-fore>).

해 위성발사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고급 우주·군사기술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으로, 이로 인해 북한의 군사능력이 향상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시도를 막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북한에 대한 방어능력과 전략적 역지력을 강화해 온 한국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3. 한국과 유럽의 관계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베이징-모스크바-평양 축의 강화에 대응해 북한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격하했다. 동시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과의 접촉을 확대했다. 또한 EU와 안보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NATO와의 방위 및 군사 협력도 강화했다. NATO는 2022년 연례 정상 회담에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초청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내에서는 핵 공유나 자체 핵 능력 확보를 포함한 자위 능력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방산기업들은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업체로 부상했다. 2022년 폴란드는 서울과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해 탱크와 경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다. 2025년 7월에는 폴란드와

## 특별기고

또 다른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한국은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K2 흑표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게 된다.<sup>6</sup>

유럽과 한국의 방위 기술 및 무기 수출 협력은 해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빅3' 조선업체 중 하나인 한화오션은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약 22억 달러 규모) 수주를 위해 현지 방산·조선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포르투갈 해군과 소형 잠수함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러우전쟁 발발 이후 한국은 폴란드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유럽 여러 국가에 무기를 수출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은 미국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량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 한국, 유럽과 일본 간 군사적·외교적 협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협력은 NATO 틀 안팎에서 EU-한국 및 EU-일본 양자 차원에서 전개되며, 주로 사이버 보안, 방위 기술, 정보 공유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2년 이후 NATO 정상회담은 러시아-중국-북한 축의 도전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정세가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왔다.

EU와 한국 및 일본 간의 안보 및 국방 분야 협력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4일 브뤼셀과 서울은 '안보

6 'Poland to buy more than \$6 billion worth of tanks from South Korea', *Azernews*, 4 July 2025(<https://www.azernews.az/region/244209.html>).



한국-EU 정상회담(2023. 5. 22.)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south-korea-eu-agree-boost-security-cooperation-joint-statement-2023-05-22/>

및 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공동 방위산업 파트너십 개발 의지를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무기 생산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sup>7</sup> 또한 2025년 7월 23일 EU-일본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방위산업, 해양 안보 및 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EU와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EU는 중국

<sup>7</sup>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Brussels, 4 November 2024([https://www.eeas.europa.eu/eeas/security-and-defence-partnership-between-european-union-and-republic-korea\\_en](https://www.eeas.europa.eu/eeas/security-and-defence-partnership-between-european-union-and-republic-korea_en)).

---

## 특별기고

을 푸틴의 우크라이나전쟁 주요 후원자로 지목하며 반복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EU는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에 사용된 드론 부품과 기술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2025년 7월 18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러시아의 군수산업 복합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제재 회피에 관여한 7개 기관(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특히 석유 제재에 대해 유럽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 EU와 달리 협상에서 자신의 손을 묶는 엄격한 공식을 따르는 것보다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양자 협정에 더 관심을 두었다. 반면, EU는 푸틴과의 접촉을 피하고 러우전쟁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4. 한반도에 새로운 새벽이 올까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적 역학이 상황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정권을 잡은 것과 2025년 6월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은 역내 분위기 개선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시바가 2024년 10월에 취임한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고위급 외교채널과 경제협력을 통해 개선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은 주변국과의 협력과 화해를 진전시키는

## 특별기고



G7 정상회담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2025. 6. 17.)

출처: <https://asianews.network/japan-pm-ishiba-south-korea-president-lee-agree-on-reciprocal-visits/>

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시바와 이재명은 2025년 6월 열린 연례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2022년부터 NATO가 일본과 한국 지도자를 연례 정상회담에 초청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대화와 외교가 주도적 논리로 자리 잡는다면, 유럽의 역할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NATO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남을 것이지만, 동시에 유럽은 ‘시민적 권력(Civilian Power)’으로서의 전통적 위상을 회복하며 남북 대화와 역내 협력 구상에 기여할

“

만약 상황이 변해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이 우세해진다면, 유럽의 역할도 변화할 수 있다.

NATO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 및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동시에 유럽의 ‘시민적 권력(Civilian Power)’이 동북아시아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환은 러우전쟁의 향방과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니콜라 카사리니(Nicola Casarini)

볼로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및 로마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ASEAN 등과의 유럽관계, 중국의 국내외정책 등이다. "Remaking Global Order: The Evolution of Europe-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Oxford University Press)를 저술했고, 편저로는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and Trust Building in Northeast Asia" (Nuova Cultura), "EU-Korea Security Relations" (Routledge) 그리고 "The Routledge Handbook of Europe-Korea Relations" 등이 있다.

# 한러 수교 35년 평가와 전망

## 새로운 관계를 위한 상호 인식의 노력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오는 9월 30일은 한러 수교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매 5년마다 각종 수교 행사가 적지 않게 열렸으나, 이번 35주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의 여파로 조용히 지나가게 될 전망이다.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의 공식관계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1994. 6.)’,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2004. 9.)’,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08. 9.)’ 등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러우전쟁 발발로 한국이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 등 대러 제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 49개국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가장 악화되었다. 여기에 북한군의 러우전쟁 참전으로 북러 관계가 사실상 혈맹관계가 되면서 한러 관계 회복에 비관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러우전쟁의 종전 협상도 시작되면서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변화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향후 대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한러 수교 35주년은 향후 한러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의 공식관계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1994. 6.)’,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2004. 9.)’,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08. 9.)’ 등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

고민을 갖게 한다.

## 1. 수사적 전략 동반자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의 모색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역대 정부는 이름은 달랐지만 나름의 러시아 중심 북방정책을 이어왔다. 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면 양국 간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였다.

수교 이후 러시아는 남한에 치우친 경향을 보였으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입지에 북한이 중요한 자산임을 점차 인식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북러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2000년 2월 조러우호조약, 6월 러시아 지도자 최초로 이루어졌던 푸틴의 북한 방문, 2001년 8월과 2002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이 북러 관계 부활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표방했으나, 북러 간에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질적 협력에 큰 진전은 없었다. 2019년 4월 김정은과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양국 간 새로운 관계 모색을 시도했으나, 곧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 북한이 국가 봉쇄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또다시 정

“  
러시아는 북한을 단순히 전쟁 협력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신유라시아 안보구조’ 구상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려 한다.  
”

체되었다.

북러 관계가 급발전한 것은 러우전쟁에 기인한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유엔 표결 등에서 러시아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친러 강대국 편승 전략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쇼이구(Сергей Кужугетович Шойгу)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의 신호탄이 되었다. 같은 해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북러 협력은 또렷이 가시화되었고, 2024년 6월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관계임을 공식화하였다.

러우전쟁 이전 러시아 정부의 대외정책 개념을 분석해 보면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남북한 등거리 원칙, 한반도 비핵화 지위 지지, 6자회담 등 정치적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참여 보장, 역내 경제협력 제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몇 가지 변화를 보인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정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다. 둘째, 북러 밀착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무시하고, 한국과는 경제이익, 북한과는 안보이익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하려 한다. 셋째, 북한을 단순히 전쟁 협력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신유라시아 안보구조’ 구

상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려 한다.

러우전쟁 이전 한러 관계는 때로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루어진 정상회의는 방 러 13회, 방한 7회, 국제회의 계기 13회에 이르며, 이를 통해 정상 수준의 의제 개발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수사적이라는 데 양국 모두 공감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기대에 못 미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외교의제에 대해 여전히 냉전적 지정학의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러 관계가 미리 관계에 동조화하는 현상은 여전히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반미의 잠재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체제 유지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조의 고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건설적인 한러 관계 정착은 매우 어려워졌다.

한러 외교관계가 진전하지 못한 또 다른 원인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러 양국은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처별로 다수의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재원 부족, 러시아의 협력 부족, 민간 참여 부족 등으로 공동연구를 제외하면 실질적 성과가 많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구상도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방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러우전쟁 종전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정부가 북방정책을 복원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 2. 양적 성장 이루었으나, 질적 발전 미흡한 경제협력

2024년 한러 교역은 2021년 대비 수출 58%, 수입 64%, 교역액 62%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러시아의 교역 순위는 2021년 수출 12위, 수입 8위에서 2024년 수출 28위, 수입 23위로 급락하였다. 투자도 같은 기간 대비 1/10로 감소하였다. 전쟁 이전 한러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1990년 대비 2021년 한러 교역 규모는 1,300배 늘어났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호텔 및 백화점 등 한국 대기업들도 러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발전은 일정 한계를 보였다.

한국의 대러 수출은 수교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1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대러 제재(2014년), 러우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2022년) 등으로 교역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1 참조). 수출이 100억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대러 제재 등 국제환경 요인이 크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구조가 공산품과 자원의 교환이라는 전통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재 수출이나 서비스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다.

투자도 러시아 경제호황기였던 2007~2010년 사이 크게 증가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러우전쟁 이후 급감하였다(그림2 참조). 대러 제재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 부족도 원인이었다. 한국은 2024년 말 기준 러시아 누적순투자액 순위에서 17위에 머물렀고, 2017~2019년 평균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 중 러시아의 비중은 0.2% 미만이었다.

##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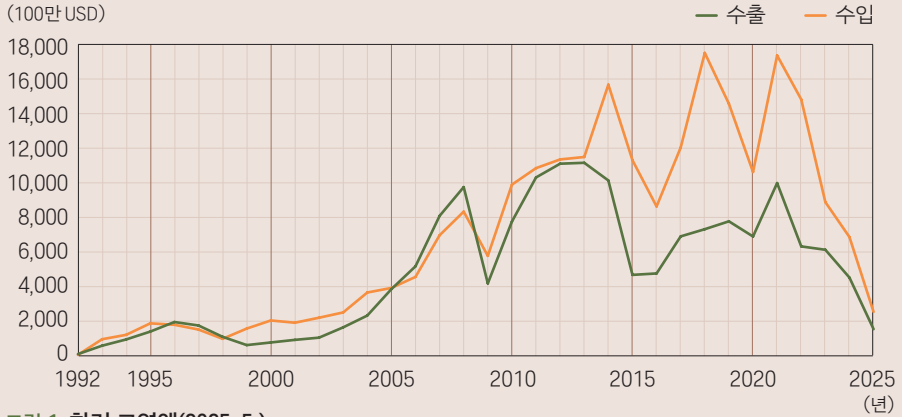


그림 1 한러 교역액(2025. 5.)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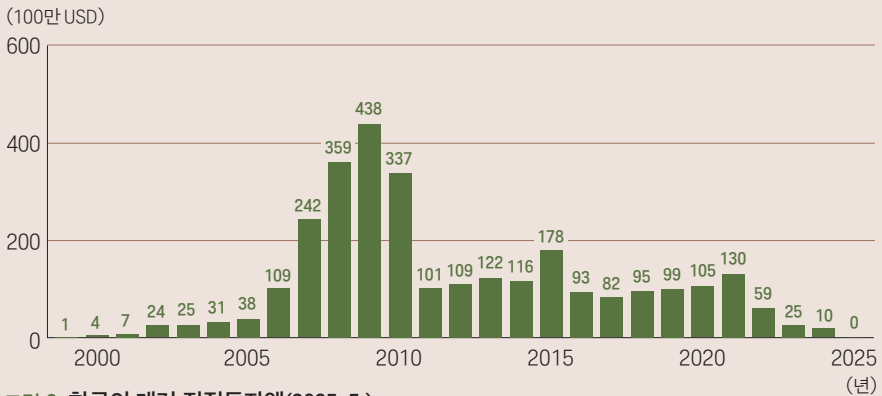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액(2025. 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  
미러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현 상황에서 한러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특히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으로 한러 관계가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

### 3. 어렵지만 전략적 접근 필요한 한러 관계

한러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미러 관계에 동조하면서 외교의제가 북핵 문제에 한정되는 측면이 강했고, 경제적으로는 북방정책이 북한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남북 관계의 기조에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를 북한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러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현 상황에서 한러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특히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으로 한러 관계가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러우전쟁의 종전 협상 전망도 매우 불확실하므로 대러 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고, 한국 역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 또는 발전을 대러 정책의 목표로 삼기는 어렵다. 관계 악화를 막고 러시아가 한국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계를 세심히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러 정책의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5(미, 일, 중, 러, 한)+1(북한)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안보, 물류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새로운

---

## 특별기고

시장 확대를 통한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차원의 관계 발전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엄구호(嚴久鎬, Eom, Gu Ho)**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중소 연구와 Journal of Eurasian Studies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러시아 대외정책, 러시아 정치경제론 등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를 거쳐,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국가규제론으로 법학박사를 받았다.

포커스

# 러시아의 전쟁과 한반도

---

**갈등의 서래(西來): 19세기 영러 대결의  
동진(東進)과 한반도의 지정학**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적대에서 동맹으로: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러일 관계**

이나바 치하루 메이조대학 교수

---

**러시아의 백년 전쟁: 크림전쟁과 한국전쟁**

옥창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정치학 전공 조교수

---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갈등의 서래(西來)

## 19세기 영러 대결의 동진(東進)과 한반도의 지정학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한반도 지정학의 기원

우리는 한반도가 고대부터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다는 설명에 익숙하다.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이자,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국가가 성립한 때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나 임진왜란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 또는 해양으로 진출하려 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기선과 철도, 전신 등 교통·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은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이었다. 기술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해양 진출을 위해 얼지 않는 항구(부동항)를 확보하려 하고, 영국이 이를 저지하려 하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친 각축전과 맞물린 결과였다.

“  
크림전쟁(1853~1857)의 패배로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출구 확보에 실패한 러시아의 동진과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대결은  
동아시아로 확대되어 조선의 개항에서부터 러일전쟁과 국권 상실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

중양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영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은 흔히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1813~1907)이라 불린다. 특히 크림전쟁(1853~1857)의 패배로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출구 확보에 실패한 러시아의 동진과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대결은 동아시아로 확대되어 조선의 개항(1876)에서부터 러일전쟁(1904~1905)과 국권 상실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일본과 중국, 심지어 한국조차도-영러 대결의 소용돌이에 수동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기술의 혁신은 서양세력의 동아시아 진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수용하고, 지구 반대편 유럽의 정세를 빠르게 파악하여 자국의 전략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19세기의 한반도를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열강이 경쟁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바꾸어 놓았다.

## 2. 크림전쟁에서 윤요호 사건으로

조선과 러시아가 처음 만난 것은 조선군이 나선정벌(羅禪征伐: 1654,

1658)에서 아무르강(중국명 헤이룽장) 유역으로 진출한 러시아와 청의 교전에 동원되면서였다. 이후 베이징을 방문한 조선 사신들은 호기심에 현지 러시아정교회를 방문하여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간 본격적인 접촉은 1860년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맞대면서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전쟁 이후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출할 출구 확보를 위해 오스만제국과 전쟁을 벌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오스만제국을 도왔다. 전쟁 과정에서 영국은 해군을 동원하여 지구 반대편 캄차카반도를 기습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크림전쟁에서 패배하여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가 무산되자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크림전쟁이 끝난지 몇 달 뒤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여 청을 상대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자, 러시아는 강화협상 중재를 명분으로 수세에 몰린 청을 압박하여 아무르강 북쪽 영토와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를 할양받았다. 러시아는 넓은 영토를 새로 얻고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가 무역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다른 나라의 영토를 노리는 훨씬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더 악화시킨 것은 러시아의 쓰시마섬 점령 사건이었다. 1861년 러시아 함대가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대한해협의 쓰시마섬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영국 함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함대를 퇴거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후 러시아를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  
러시아 위협론은 결국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개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이렇게 형성된 러시아 위협론은 결국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개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에 신정부 수립을 알렸으나, 조선 측이 서계에 ‘황(皇)’, ‘칙(勅)’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 격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면서 국교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1860년대 후반부터 사할린(일본명 가라후토)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등은 사할린을 포기하고 홋카이도 개발에 전념하면서 조선 진출에 국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로다 등은 러시아가 쓰시마섬의 조선쪽 대안(對岸)을 장악하게 되면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의 남침에 대비해야 하지만, 조선이 완고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은 쓰시마섬의 조선 쪽 대안을 군사적으로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1875년 에노모토를 파견하여 사할린을 러시아에게 양보하는 쿠릴-가라후토교환조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모리야마의 제안을 받아들여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듬해 구로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모리야마와 구로다 등은 조선과 수차례 교섭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위협론을 설파하며 조선이 일본과 협력하여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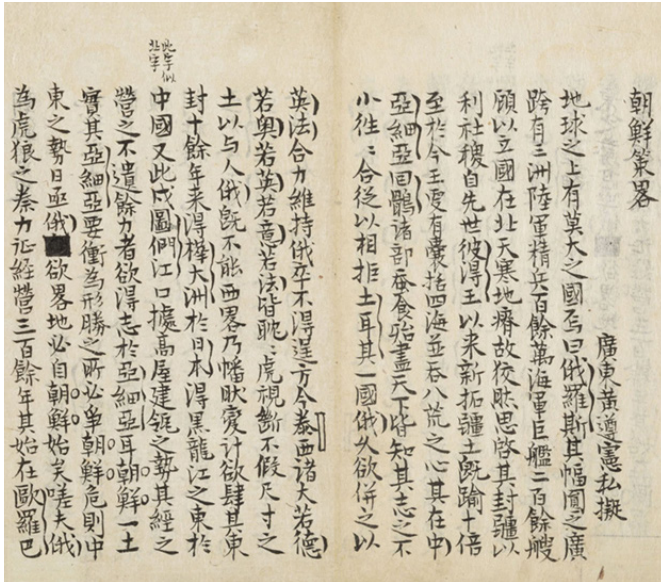
### 3. 베를린조약(1878)과 『조선책략』

1879년, 청은 러시아가 점령한 신장(新疆) 일리(伊犁) 지역의 반환협상이 파행을 겪으며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청의 주일공사 허루장(何如璋)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나가사키를 오가는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러시아가 남하하여 한반도를 장악할 경우 만주와 베이징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청은 조선을 보호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허루장은 청 정부가 조선 측에 서양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서양 열강이 조선에서 통상의 이익을 균점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를 견제하게 되면 조선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다만 각국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조선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은 조약을 체결할 때 청의 속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루장은 자신의 부하 황준센(黃遵憲)에게 이러한 구상을 글로 정리하여 김홍집에게 선물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조선책략』이다. 이 책은 러시아의 침략성을 강조하고 조선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루장의 구상과 『조선책략』은 사실 동시대 유럽에서 전개된 러시아-튀르크전쟁(1877~1878)과 그 처리 과정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크림전쟁 이후 절치부심하던 러시아는 러시아-튀르크전쟁에서 오스만제국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1878년 3월 체결한 산스테파노조약에서 오스만제국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등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오



『조선책략』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스트리아 등이 개입하여 다시 베를린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불가리아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고, 또한 불가리아와 신생 독립국들에게서 영토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청의 외교 당국자들은 이 사건에서 조선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

허루장은 일본어로 소개된 베를린조약의 내용을 번역하여 본국에 보고하였다. 이를 받아본 북양대신 리홍장(李鴻章)은 허루장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오스만제국이 서양 열강을 끌어들여 러시아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조선이 서양 각국과 수교하도록 해야 한다는 허루장의 주장을 칭찬하고, 조선의 원로인 이유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일본과 결탁해야 할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리홍

“  
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개입하여 다시 베를린조약을 체결하였다. ...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청의 외교  
당국자들은 이 사건에서 조선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  
”

장의 표현으로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당시의 국제법 용어로는 ‘균세(均勢)’, 즉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상태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국내에 반입하여 유포하고, 리홍장의 권유가 이어지면서 조선 정부는 서양 열강과 수교하고 통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조선의 여론은 러시아 위협론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오랑캐로 여겨왔던 서양인과의 교류에 대한 반발이 더 컸다. 러시아는 조선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고, 러시아, 일본, 미국 모두 똑같은 오랑캐인데 남의 말을 믿고 선불리 문호를 개방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위정척사의 여론이 기세등등하였다. 결국 조약 추진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고종은 영선사 김윤식을 파견하여 리홍장에게 미국과의 조약 체결 협상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권대신을 보내지 못한 채 미국과의 교섭을 모두 리홍장에게 맡겨야 했다.

#### 4. 조선, 그레이트 게임에 휘말리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곧이어 영국, 독일도 동일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은 서구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이 일어나면서 청이 의도한 세력균형 정

책은 위기를 맞았다. 청이 군대를 파병하여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압송하여 바오딩(保定)에 연금한 사건은 조선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2년 후 청군은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일본군과 충돌하였다. 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열강의 힘을 빌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어그러졌다.

한편, 고종은 청과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1885년과 1886년 두 차례에 걸쳐 조러밀약으로 인한 풍파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독일인 고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가, 이듬해에는 영의정 심순택의 명의로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한 두 사건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고종의 행위와 국제정세 인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두 사건은 조선이 조선책략식 러시아 위협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1885년 영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러시아군이 영국의 식민지 인도로 가는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의 판데(Panjdeh) 지역을 점령하면서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영국 해군은 전쟁이 일어나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 정부에 알리지 않고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조선 정부는 영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궁지에 빠진 영국 정부는 조선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 정부와 교섭했다. 영국 측이 제시한 철수 조건은 조선이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청 정부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다. 청 정부가 조선을 단독으로 보호하거나, 여러 열강과 공동으로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러시아가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낸다면 군대를 거문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에 대하여 조선과 청 당국에 영국 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러시아도 조선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주도 점령을 고려하였으나 열강의 반발을 우려해 실행하지 않았다. 특히 영국의 거문도 점령 직후 발생한 제2차 조러밀약사건으로 러시아는 더욱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1886년, 영의정 심순택의 명의로 조선 정부가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는 밀서의 사본이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유출되면서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다. 위안스카이와 리홍장은 조선 정부와 러시아에 문서의 진위를 강력히 추궁하고, 러시아가 조선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기 전에 고종을 폐위하고 친중 정권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밀서를 받은 것을 부인하면서,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조선 정부 역시 밀서가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리홍장은 러시아 대리공사 라디젠스키(M. Ladygensky)를 텐진으로 초청하여 조러밀약사건과 거문도사건의 해결책으로 청과 러시아가 조선의 영토를 보전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밀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러시아는 청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반도에 파병하여 고종을 폐위하거나 간섭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였고, 청은 거문도의 영국군 철수를 위해 러시아가 조선 영토를 점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였다. 나아가 러시아와의 조약을 바탕으로 일본을 압박하여 조선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리홍장의 의도였다. 그러나 청 조정이 '러시아가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승인한다'라는 문구의 추가를 요구하고 청의 의도를 의심한 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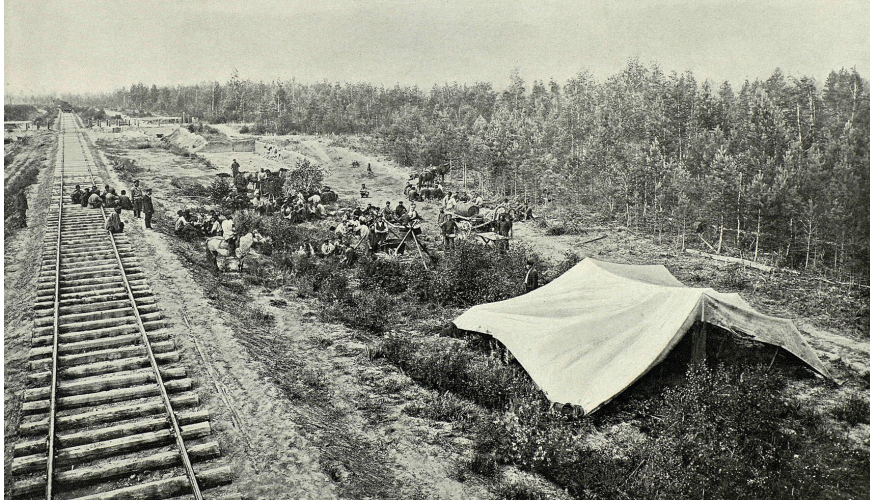
아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조선의 현상유지와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구두협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청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의 영토보장 약속을 받아내어 거문도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리홍장과의 구두협약에 만족하였고, 일본은 거문도사건의 충격으로 청일전쟁 전야까지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와 간섭정책을 묵인하였다.

## 5. 시베리아철도와 청일·러일전쟁

청은 1885년 일본과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군사적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러시아와는 조선 영토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는 구두협약을 체결하였다.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철수하자,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아시아 세력 확장에 대한 공포는 일본이 10년 뒤 전쟁을 준비하는 명분이 되었다.

러시아는 1887년 시베리아철도 착공에 들어갔다. 재무상 비떼(Sergei Yulyevich Witte)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러시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유럽 자본으로 러시아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아시아를 자국의 상품시장으로 확보하여 통상이익을 얻는 전략을 추구했다. 군사적 수단에 의존한 전통적인 영토 확장에서 벗어난 유화적 전략이었으나, 청과 일본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특히 일본의 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되면 러시아 군대의 수송이 빨라져 일본의 '이익선(利益線)'의 핵심인 조선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군부는 한발 더 나아가 조속히 군비를 확충하여 시베리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건설

출처: <https://cdn2.picryl.com/photo/1899/12/31/099-ukladka-puti-f40538-1024.jpg>

철도 완공 전에 청을 굴복시켜 조선을 확보한 뒤, 다시 청과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1894년, 일본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청군의 파병을 계기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과 청의 거듭된 공동 철병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쟁을 도발하여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었다. 러시아는 전쟁을 막기 위한 조선과 청의 요청에 응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면서 랴오둥반도 남단을 할양받는 내용을 포함하자, 러시아는 관망하던 태도를 바꾸어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에 나섰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서 랴오둥반도를 청에 돌려주어야 했다.

러시아가 소극적인 관망정책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되면  
러시아 군대의 수송이 빨라져 일본의 '이익선'의 핵심인 조선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군부는 한발 더 나아가 조속히  
군비를 확충하여 시베리아철도 완공 전에 청을 굴복시켜 조선을 확보한 뒤,  
다시 청과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

이권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장이 되었다. 조선에서 삼국간섭을 계기로 고종과 명성황후가 친일내각을 붕괴시키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는 결국 아관파천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졌다.

만주에서 청은 청일전쟁 직후 일본의 재침공에 대비해 러시아와 비밀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만주를 관통하여 시베리아철도를 연결하는 동청철도 부설권을 넘겨주었다. 사실상 청의 영토인 만주를 러시아군이 보호하도록 한 조치였다. 1898년 독일이 삼국간섭의 대가로서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조차하자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뤼순(旅順)과 다롄(大連)을 조차하였다. 1900년 의화단사건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만주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출병하여 만주를 점령하였다. 협상을 거쳐 군대의 철수를 약속했지만, 철군은 지연되었다.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의 마산포와 거제도를 조차하여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랴오둥반도의 뤼순·다롄을 잇는 러시아 함대의 중간기착지이자 연료공급지로 삼으려 했다. 이는 러시아의 새로운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태평양 진출 전략의 중요한 고리였으나, 일본은 이를 일본열도의 심장부에 비수를 겨누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항의하여 무효화하였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경계하던 영국

과 일본의 동맹(1902)을 촉진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하위파트너로서 영국의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은 이듬해 대한해협에서 일어난 쓰시마해전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일본 함대에 참패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1905년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을 강요당했다.

## 6. 맺음말: 러시아의 전쟁, 한반도 지정학에 영향을 주다

19세기 말,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열강 중에서 실제 한반도를 거점으로 대륙 또는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국가는 러시아와 일본 뿐이었다.

청은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해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러시아와 일본에 대항하여 한반도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정도의 방어적 제국주의 정책이었다. 또한 영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관심은 러시아의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거문도점령사건(1885)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으나, 대체로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청과 일본 등 주변 강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 나가려 했다.

반면 러시아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양 진출을 모색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대륙 진출을 실현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군사력 열세 및 청, 일본, 영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여 한반도에 대해 장기간 소극적인 관망정책을 유지했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를 자국의 생존과 독립 유지에 필수적인 ‘이익선’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와의 대결을 전제로 준비

를 확충하였다. 일본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영러 대결과 러시아 위협론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19세기의 영러 대결이라는 긴 호흡의 맥락에서 보면, 1853년 보스포루스해협을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크림전쟁에서 좌절된 러시아가 유라시아대륙 동단에서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방 영토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진출에 집중하여 운요호 사건(1875)을 일으키고 조일수호조약(1876)을 체결하였다. 열강이 개입하여 러시아-튀르크전쟁의 결과를 뒤집은 베를린조약(1878)은 『조선책략』으로 상징되는 청의 조선 문호개방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러시아와 영국의 갈등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5)으로 비화되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착공(1887)과 만주에서의 세력 확장은 결국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지지를 받으며 한반도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으나 강대국의 대결에 수동적으로 휘말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제한된 정보와 시야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자국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 것을 결과론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는 의외의 형태로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우전쟁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뉴 그레이트 게임(The New Great Game)’이나 ‘신냉전’ 같은 용어로 새로운 양극체제의 출현 논의가 대두된 지 오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 같은 구시대의 지정학 담론이나 진영 논리가 회자되는

## 포커스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중러 군사 협력의 대립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더해지고 있다.

운요호 사건으로부터 150년, 러일전쟁으로부터 120년이 지난 현재, 크림반도에서 시작한 러시아의 전쟁이 다시금 한반도 지정학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구도에 수동적으로 구속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덕규, 2008, 『제정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891~1907』, 경인문화사.
- 최덕규, 2021, 『대한제국 국제관계사 연구(1882~1910)』, 동북아역사재단.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옮김, 2019,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 한길사.
- 이동욱, 2018, 「청말 중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사총』 96.
- 이동욱, 2020, 「李鴻章-라디젠스키 天津 회담 (1886)의 재고찰-李鴻章의 의도와 역할을 중심으로-」, 『사총』 101.



**이동욱(李勳旭, Lee, Dong-u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청말 대조선 정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강사, 일본 나고야대학 방문연구원,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연구전임교원 등을 역임하였다. 논저로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청말 중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史叢』 96, 2019), 『1880~1890년대 동서양 중주권 개념의 변용과 착종: 영국과 청조의 사례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 157, 2021) 등이 있다.

# 적대에서 동맹으로

##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러일 관계

이나바 치하루 메이조대학 교수

### 1. 러일전쟁의 종결: 군사의 관점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시아에 국교 단절과 외교단 철수를 통고했다. 곧바로 인천의 러시아 함선을 공격하고, 9일에 서울을 점령했다. 러일전쟁의 발발이다. 12일에 러시아 외교단은 서울을 떠났고,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고립되었으며,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정(軍政)을 실시하고, 이후 만주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한국인은 일본군에게 협력할 것이 강제되었고, ‘군율(軍律)’이라는 이름의 계엄령에 따라 일본에 저항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군정하에서 일본은 한국 지배를 강화했다.

러일전쟁 시기, 한국 국내에서는 함경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투가 치러지지 않았다. 일본 육군은 만주로 진군하여 뤼순(旅順) 요새를 항복시키고, 랴오양(遼陽)이나 평토편(奉天)에서 치른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 그러나 일본군도 타격이 극심하여 1905년 봄의 시점에서 더 이상 하얼빈

“  
러시아는 동해해전의 패배로 동아시아에서 지니고 있던  
해상권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게다가 러시아 국내에서 제1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

의 러시아군 주력을 타도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다. 한편, 러시아는 동해  
해전<sup>1</sup>의 패배로 동아시아에서 지니고 있던 해상권력(제해권)을 완전히 상  
실했다. 게다가 러시아 국내에서 제1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 같은 해 9월 5일, 미국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주 포  
츠머스에서 러일전쟁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포츠머스강화조약으로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 승인
- ② 만주에 대한 모든 나라의 무역, 투자 활동 보장
- ③ 러시아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대한 조차권, 그리고 뤼순과 창춘(長春)을 잇  
는 철도를 일본에 양도
- ④ 러시아가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 양도
- 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급 없음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남만주  
의 이권을 양도했다. 중국을 고립시키고 스스로 북만주의 이권을 확보하

1 역자주: 원문에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인 일본해해전(日本海海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동해해전으로 번역하였다.

겠다는 만주 분할에 대해 일본과 합의했다. 러일전쟁 이전에 비해, 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매우 낮아졌다.

일본은, 러시아가 남만주를 탈환하기 위해 복수전을 걸어올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러시아가 연해주와 국경을 접하는 한국 북부로부터 육군을 남하시켜 한국 전역을 제압할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은 두 개 사단을 한국에 주둔시켰는데,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 후에도 군대를 철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점령정책에 반발하여 한국에서는 의병투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일본 측도 헌병대를 투입하여 압제정치를 강화했다. 저항과 탄압이 반복되면서 증오의 연쇄가 시작됐다.

## 2.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행방

1905년 10월 16일, 포츠머스강화회의에서 일본 측 전권을 맡았던 고무라 주타로(小村寿太郎) 외무대신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고무라는 귀국하는 열차와 배 안에서 이른바 한국보호조약, 곧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과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의 초안인 ‘한만시설강령(韓滿施設綱領)’을 작성하고 그 도입을 검토했다. 10월 27일, 일본 정부의 내각회의에서 일본이 강화조약 ①에 기초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보호권’을 확립할 것과, 강화조약으로 획득한 ③의 이권 양도를 청국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11월 2일, 한국 특파대사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청국 특파대사에 고무라가 임명되었다.

①에 관해서는, 이미 일본이 러일전쟁 발발 직후에 한국을 군사 점령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1905년 11월 9일에 경성에 들어간 이토

는 17일에 군사력을 내세워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한국 측이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가 초대 통감이 되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29일에 가쓰라 다로(桂太郎) 수상과 당시 일본에 방문한 미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Taft)가 맺은 가쓰라-태프트 각서에 따라,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한국 지배권이 상호 승인된 상태였다. 또한 8월 12일에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영국에게도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열강의 지지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추진했다.

만주에 관해서도 살펴보자. 일본은 당초에 강화조약 ②와 ③ 합의에 기초하여 라오동반도를 제외한 남만주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예정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복수를 두려워한 육군이 철병에 저항했다. 게다가 ⑤에 따라 배상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얻은 남만주에 대한 이권을 청국에 인정받아야 했다. 고무라는 1905년 11월 17일에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여 청국 측과 교섭을 시작했다. 일본은 청국에 라오동반도의 조차(租借)와 남만주철도에 대한 이권 승계뿐만 아니라 만주의 문호개방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같은 해 12월 22일에 만주 문제를 둘러싼 청일조약을 청국 측이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일본은 남만주의 권익을 손에 넣고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얻을 수 있었다.

1906년 2월, 러일 양국은 국교를 회복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합의한 만주 철병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어 같은 해 7월에는 양국 모두 철병이 완료되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철도 수비를 명목으로 남만주에 2개 사단을 남겨두고 있었다. 러일전쟁을 주도한 원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러시아가 반드시 복수해 올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육군 사단의 수를 러일전쟁 당시 13개 사단에서 거의 2배인 25개 사단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재정난과 만주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 계획은 축소되어 같은 해 11월에 7개 사단만 증설한다고 결정되었다. 계획보다 축소되었다 해도,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양도받은 남만주 이권을 민정(民政)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급무였다. 1906년 6월 7일, 창춘과 뤼순을 잇는 철도를 운영하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곧 만철을 설립했다. 같은 해 8월 1일에는 라오둥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주철도 부속지를 관할하는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를 창설하여 유사시에 필요한 군정을 관장하도록 했다.<sup>2</sup> 관할지의 방위를 담당하는 관동도독부의 육군부가 훗날의 관동군이다. 아직 러시아와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고 군사적인 고려도 필요했지만, 일본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남만주 경영에 착수했다.

### 3. 제1차 러일협약(1907. 7.)

만철 총재로 취임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야마가타처럼 러시아를 최대의 적국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가 만주를 일본의 경제권에 끌어들이기 위한 잠재적인 파트너이자, 이권을 노리는 다른 열강으로부터 만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러시아 측에서도 외무대신 알렉산드르 이즈볼스키(Alexander Izvolsky)를 중

2 ワシーリー・モロジャコフ 著, 木村汎 訳, 2009, 『後藤新平と日露関係史: ロシア側新資料に基づく新見解』, 藤原書店, 13~17쪽.

심으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일본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노린 데에는 다른 측면이 존재했다. 바로 한국이다. 이토 통감은 한국을 둘러싸고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한반도가 불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았다. 이즈볼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토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 문제를 둘러싸고 러일 관계가 다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로와 각료에게 러일협상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협상은, 앞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조건이라고 설득했다. 야마가타도 남만주 경영의 진전을 위해 러시아와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sup>3</sup>

이토의 근심 배경에 헤이그밀사사건이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고종은 1906년 1월에 서울에 부임한 러시아공사 게오르기 플란손(Georgy Planson)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플란손은 포츠머스조약과 러시아의 대한(對韓) 정책은 별개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해 5월에 이즈볼스키로부터 러일 관계에 방해된다는 주의를 듣고 고종과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고종은 포기하지 않고 1907년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호소하고자 했다. 회의의 의장을 맡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대사 알렉산드르 넬리도프(Alexander Nelidov)는 한국인 밀사와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물론 한국인의 참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제2차 한일협약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여 한국 밀사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주의했다. 이토 통감은 밀사의 배후에 있던 황제의 획책

3 麻田雅文, 2018, 『日露近代史: 戦争と平和の百年』(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150~151쪽.

“

1907년 7월 30일, 제1차 러일협약이  
조인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외몽고(몽골)에서 가진 특수권익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도 일본이 한국에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이로써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문제에서  
손 떼도록 했다. 더 이상 일본의 한국 병합에  
반대하는 열강은 없었다.

”

을 알고 격노하여 고종을 퇴위시켰다.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과 일본군의 계속 주둔, 한국 사법권·경찰권의 통감 이양을 결정했다.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간주되었고, 조선 민중이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의병투쟁밖에 남지 않았다.

1907년 7월 30일, 제1차 러일협약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인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외몽고(몽골)에서 가진 특수권익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도 일본이 한국에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이로써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문제에서 손 떼도록 했다. 더 이상 일본의 한국 병합에 반대하는 열강은 없었다.

#### 4. 제2차 러일협상(1910. 7.)

러시아 내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관점 차이로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다. 극동 러시아를 방위하기 위해 군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일 강

## 포커스



**이토 히로부미**

출처: 『近世名士写真』 1, 国立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https://dl.ndl.go.jp/pid/3514946>)



**블라디미르 코콥초프**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Vladimir\\_Nikolaevič\\_Kokovcov.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Vladimir_Nikolaevič_Kokovcov.jpg)

경파가 세력을 되찾고 있었다.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대신 블라디미르 코콥초프(Vladimir Kokovtsov)는 강경파를 억누르고 일본에 대한 유화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극동으로 시찰을 갔다. 한층 러일 친선을 원하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도 코콥초프와 회담하기 위해 일본에서 하얼빈으로 향했다. 10월 26일, 이토는 타고 온 철도 안에서 코콥초프와 면회했다. 두 사람은 시민과 외국 영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역 승강장에 내렸다.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지고, 이토는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다.

러시아의 대일 강경파는 자신들이 경비를 관할하는 하얼빈역에서 이토의 암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는



하얼빈역에 있는 암살 직전의 이토 히로부미와 블라디미르 코콥초프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to\\_before\\_death.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to_before_death.jpg)

것은 아닐지 우려했다. 이즈볼스키 외무대신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대일 관계 개선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여 만주에 대한 권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10년 7월 4일, 열강의 만주 개입을 막고 청국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면서 양국이 만주에 대한 권익을 독점하기 위해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긴밀한 협력으로 미국의 만주 진출을 막았고, 러일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기는 소멸되었다. 또한 협약에서는, 특수권익을 보유한 지역, 곧 일본의 남만주와 한반도, 러시아의 북만주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행동은 서로 존중하기로 정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추진하는 행동에 대해 러시아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했다. 같은

“  
하얼빈에서 일어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러일 관계의 개선을 촉진했고, 일본의 한국 병합을 뒷받침했다.  
역사적 아이러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

해 8월 29일, 일본은 한국 병합을 완료했다.

하얼빈에서 일어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러일 관계의 개선을 촉진했고, 일본의 한국 병합을 뒷받침했다. 역사적 아이러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 5. 제3차(1912. 7.), 제4차(1916. 7.) 러일협약과 러일동맹의 종언

1911년 10월에 신해혁명이 발발했다. 청국의 권력은 붕괴했고, 1912년 1월에 쑨원(孫文)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난징(南京)에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화북 지역에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황제를 퇴위시키고 쑨원을 끌어내린 후 스스로 대총통의 자리에 앉았다. 중국 내에는 권력의 공백지대가 생겼다. 이 기회를 틈타 1912년 8월 3일에 제3차 러일협약이 조인되었다. 베이징을 지나는 경도선(經度線)을 분계선으로 삼아 내몽고의 동쪽 권익을 일본, 서쪽 권익을 러시아에 할당하기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내몽고 진출이 시작된 것이다.

1914년 7월 말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공세에 직면한 러시아는 일본에 군수물자 제공을 요구했고, 일본도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15년에 들어와 러시아는 독일군의 대공세에 직면했고, 열세에 빠진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무기뿐 아

“

러일전쟁 후 대립에서 협조로 방향을 바꾼  
러일 관계는 다시 극도로 긴장되었다. 다만 러시아혁명 이후에도  
소비에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

”

나라 원자재와 군수품까지 대량으로 수출했다.<sup>4</sup> 1916년에는 일본이 러시아 군사채권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3일, 제4차 러일협약이 조인되었다. 실질상의 러일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공수(攻守)동맹을 맺고 열강의 영향력이 약해진 중국에서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917년 3월, 러시아 2월혁명이 발발하여 로마노프왕조가 붕괴했다. 10월혁명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했고, 1918년 3월 소비에트 정부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했다. 1917년 말, 영국과 프랑스는 시베리아 철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군수물자가 독일군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에 시베리아 파병을 요청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연합국 사이의 불협화음을 확대할 목적으로 비밀협약을 포함하여 제4차 러일협약을 신문에 폭로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연합국과 공동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했다.

제4차 러일협약에 따른 러일동맹 관계는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후 일본은 사회주의를 내건 소비에트 정부 타도를 내세우고 1922년까지 시베

4 바르 이슈에프·에드워드, 2007, 『日露同盟の時代 1914-1917年: 「例外的な友好」の真相』, 花書院; Д. Б. Павлов, 2014,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оды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ервая мировая. Великая 1914-1918*, Москва: РОССПЭН.



안중근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_Jung-geun.JPG#/media/%ED%8C%8C%EC%9D%BC:An\\_Jung-geun.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_Jung-geun.JPG#/media/%ED%8C%8C%EC%9D%BC:An_Jung-geun.JPG)

선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러시아 지배하에 있는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우려는 러시아가 일부러 느슨하게 경비하여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하게 했다고 오해하고 일본이 전쟁을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요인 살해라는 죄명으로 안중근을 곧바로 일본에 인도하고, 미련이 남아 있던 한국에 대해 완전히 관심을 끊었다. 그리고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러일 관계 개선은 결국 일본의 한국 병합을 뒷받침했다.

리아에 머물렀다. 러일전쟁 후 대립에서 협조로 방향을 바꾼 러일 관계는 다시 극도로 긴장되었다. 다만 러시아혁명 이후에도 소비에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

## 6. 러일 관계 개선의 귀결: 일본의 한국 병합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더는 군사적으로 일본을 타도할 수 없었다. 극동에 대해 품은 영토적 야심 또한 일본과의 만주 이권 분할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립할 수 없다면 일본과 관계 개

## 포커스

### 참고문헌

- 稲葉千晴 編著, 2025, 『日露戦争再考: 軍事と外交の視点から』, 成文社.
- 麻田雅文, 2014, 『満蒙: 日露中の最前線』, 講談社メチエ.
- 麻田雅文, 2018, 『日露近代史: 戦争と平和の百年』(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 パールィシェフ・エドワルド, 2007, 『日露同盟の時代 1914-1917年: 「例外的な友好」の真相』, 花書院.
- 小林道彦, 1996, 『日本の大陸政策1895-1914: 桂太郎と後藤新平』, 南窓社.
- 小林道彦, 2006, 『桂太郎: 予が生命は政治である』, ミネルヴァ書房.
- ワシーリー・モロジャコフ 著, 木村汎 訳, 2009, 『後藤新平と日露関係史: ロシア側新資料に基づく新見解』, 藤原書店.
-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外務省.
- 外務省 編, 1953, 『小村外交史』上下巻, 紅谷書店.
- 外務省外交史料館日本外交史辞典編纂委員会, 1992, 『新版 日本外交史辞典』, 山川出版社.
- 千葉功, 2008, 『旧外交の形成: 日本外交1900-1919』, 勁草書房.
- Sheila Miyoshi Jager, 2023, *The Other Great Game: The Opening of Korea and the Birth of Modern East Asia*,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Д. Б. Павлов, 2014,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годы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ервая мировая. Великая 1914-1918*, Москва: РОССПЭН.



### 이나바 치하루(稲葉千晴, INABA Chiharu)

메이조대학(名城大學) 도시정보학부 교수

러일 관계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국제관계와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 Berger, Stefan, Igor N. Smirnov, and Chiharu Inaba, eds., *Rethink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05: Centennial Perspectives Vol. 2, Politics and Security*(Kent: Global Oriental, 2007)과 ИнабаЧихару, Японский резидент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Полковник А каси Мотодзиро и его миссия 1904-1905 гг.(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13) 등이 있다.

# 러시아의 백년 전쟁

## 크림전쟁과 한국전쟁

육창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정치학 전공 조교수

### 1. 핀란드와 북한 사이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핀란드와 북한 사이엔 단 하나의 나라만 있다”는 제목의 지도가 화제가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두 나라 사이에 단 하나의 국가만 존재한다는 의외의 사실이 인기의 비결이었으리라. 어떤 이는 이에 더해 “노르웨이와 북한 사이에도 한 나라밖에 없다”고 농담성 댓글을 달았으며, 또 다른 이는 “북한도 유럽연합”이라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핀란드와 북한, 멀어 보이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한 국가는 바로 러시아다.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는 핀란드 인근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북한 근처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져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1500년대부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1600년대에 러시아는 바이칼호수 인근까지 진출했고, 1650년대에는 마침내 오호츠크해를 통해 태평양에 도달했다.

이후 러시아와 청은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Treaty of Nerchinsk)을



“핀란드와 북한 사이엔 단 하나의 나라만 있다”

출처: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1lfez4p/north\\_korea\\_is\\_only\\_one\\_large\\_country\\_away\\_from/](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1lfez4p/north_korea_is_only_one_large_country_away_from/)

체결하며 양국 간의 국경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 청은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세력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고, 러시아 역시 당시 인구와 경제력이 부족한 시베리아를 유지·관리하는 데 집중하며 마찰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확장이 제한될 때마다 아시아로 시선을 돌려 보상을 얻으려 했다. 유럽에서의 열세를 아시아에서 만회하려는 시도였다.

“

크림전쟁은 19세기 내내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인도 지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 간에 벌어진 세력 경쟁,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전초전이었다.

”

결국 핀란드 인근에서 출발한 러시아가 지금의 북한 지역과 접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1850년대 발발한 크림전쟁이었다. 1853~1856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1815년 나폴레옹전쟁 이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이른바 ‘100년 평화’ 시기에 규모가 큰 전쟁 중 하나였다.

## 2. 동쪽까지 온 러시아의 ‘기다리는 정책’

러시아가 동쪽으로 계속 팽창을 한 것은 남쪽으로는 진출을 막은 오스만튀르크의 존재 때문이었다. 강대한 오스만제국의 존재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이유이자, 러시아가 시베리아 방면으로 나아간 숨은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만제국이 제국 내의 여러 민족 문제와 근대화의 부진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오스만제국의 관리하에 있던 보스포루스해협을 넘어 지중해 방면으로의 진출을 노리기 시작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전쟁 이후 ‘유럽의 평화’를 관리하던 영국이 오스만제국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이것이 바로 1850년대의 크림전쟁이다. 이 전쟁은 19세기 내내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인도 지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 간에 벌어진 세력 경쟁,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의 전초전이었다.



크림전쟁의 주요 전투인 세바스토폴 공방전(1855)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rimean\\_War#/media/File:Siege\\_of\\_Sevastopol\\_1855.jpg](https://en.wikipedia.org/wiki/Crimean_War#/media/File:Siege_of_Sevastopol_1855.jpg)

크림전쟁은 주로 크림반도와 흑해 일대에서 전개되었는데,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급선을 가진 이점이 있었음에도 3년 동안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1세는 분노와 실의 속에 사망했다. 그만큼 전쟁 패배의 충격은 컸다. 크림전쟁은 한때 나폴레옹을 격파했던 러시아군의 ‘무적신화’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쟁의 패배 이후 러시아는 내부 개혁에 착수하며, 유럽과 지중해 방면으로의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시선을 동쪽으로 돌린다. 마침 청이 서구 열강과 제2차 아편전쟁(1856-1860) 중이던 틈을 타, 러시아는 외교적 중재자로 나서며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 연해주(Primorye) 지역을 청으

로부터 할양받는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동방을 정복하라’는 뜻을 지닌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하고, 1864년에는 ‘뜻밖의 횡재’라는 의미를 담은 나훛카를 세운다. 이 두 도시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핵심거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해주는 러시아 본토로부터 지나치게 떨어져 있었다. 러시아는 면으로는 광대했으나, 선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이에 러시아는 1867년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크림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저 멀리 있는 극동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항을 공격하기도 했었다. 러시아는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냈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바다를 타고 원거리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육지를 통해 연결된 러시아의 방어선은 지나치게 넓었고 기민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기는 대신, 미국이 캐나다의 영국 세력을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 양방향에서 견제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전략적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건설이 필요했지만, 이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아시아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현상유지정책, 이른바 ‘기다리는 정책’을 선택한다. 조선과 러시아 간의 외교관계도 1884년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로의 진출보다는 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거나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다.

러시아가 ‘기다리는 정책’을 취하고,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 등의 개입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식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일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일본은 이 시기를 틈타 동아시아의



열강에 의한 청 분할 풍자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cramble\\_for\\_China#/media/File:China\\_imperialism\\_cartoon.jpg](https://en.wikipedia.org/wiki/Scramble_for_China#/media/File:China_imperialism_cartoon.jpg)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며, 1894년 청과 전쟁에 돌입한다. 청이 패배한 뒤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 인정되었고, 랴오둥반도, 타이완, 평후(澎湖)제도 등이 일본에 할양된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다.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장악하게 되면 청의 수도인 베이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만주 또한 일본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만든다. 이른바 '삼국간섭'이다. 일본이 여기에 굴복

“

일본 내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러시아가 가로챘다는 인식이 퍼지며 반러 정서가 고조되었다.  
이 정서는 결국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전쟁으로 폭발한다.

”

하여 랴오둥반도를 청에게 돌려주자 청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랴오둥반도 내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했고, 러시아는 뤼순항(Port Arthur)을 군항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러시아는 마산포, 거제도 등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려고 시도하면서 기회를 노렸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러시아가 가로챘다는 인식이 퍼지며 반러 정서가 고조되었다. 이 정서는 결국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전쟁으로 폭발한다. 전쟁은 일본의 신승(幸勝)으로 끝났고, 일본은 랴오둥반도, 만주,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다. 대한제국은 전쟁이 끝난 지 두 달 만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다.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던 남사할린(사할린 남부)까지 빼앗으며 러시아에 큰 굴욕을 안긴다. 남사할린은 끊임없이 팽창을 거듭하던 러시아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상실한 영토였다. 보상의 공간이었던 아시아가 ‘굴욕의 공간’이 된 것이다. 러시아는 이 굴욕을 되갚고자 했지만, 곧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을 겪으며 제정러시아에서 소비에트체제로 전환되었고, 러시아내전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을 한동안 상실한다.

소련은 일본에 비해 국력은 큰 나라였지만, 유럽의 정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했기에 아시아에만 전력을 집중할 수는 없었다. 소련과 일본은 몇 차례 국경 충돌을 겪었고, 1941년에는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한다.

이후 일본은 만주와 몽골, 시베리아 방향이 아닌 동남아시아로 남진정책을 추진하며, 소련과의 전면 충돌은 피하고자 했다. 소련도 이 조약을 통해 유럽전선의 추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 3. 스탈린의 전후 아시아 구상

제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한 스탈린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후 아시아 전략을 구상했다. 그의 기본적인 전략은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정학적 구상에 기초를 두었다. 스탈린은 우선 외몽골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소련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동항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러시아제국 시기부터 세운 장기적 목표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은 러일전쟁의 패배를 잊지 않고 있었다. 1945년 크림반도의 얄타(Yalta)에서 열린 회담에서 스탈린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과 만나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는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전하는 대가로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뤼순기지의 조차권 회복, 만주 철도의 공동 운영권을 요구했다. 일본과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 중이던 미국은 소련의 참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얄타회담의 합의에 따라 소련은 유럽전선이 종료된 후 2~3개월 내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러일전쟁 당시 상실한 권리를 회복했다. 다만 이 같은 합의는 당시 중국 정부였던 중화민국과의 협의가 필요했으므로, 미국은 소련과 중화민국 간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 결과, 1946년 중화민국은 외몽골의 독립을 마지못



얄타회담의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1945)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Yalta\\_Conference#/media/File:Yalta\\_Conference\\_1945\\_Churchill,\\_Stalin,\\_Roosevelt.jpg](https://en.wikipedia.org/wiki/Yalta_Conference#/media/File:Yalta_Conference_1945_Churchill,_Stalin,_Roosevelt.jpg)

해 승인한다. 스탈린이 한반도를 38도선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점령하는 것을 흔쾌히 동의한 것은 이러한 전후 아시아 구상의 연장이었다. 당시 스탈린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와 뤼순기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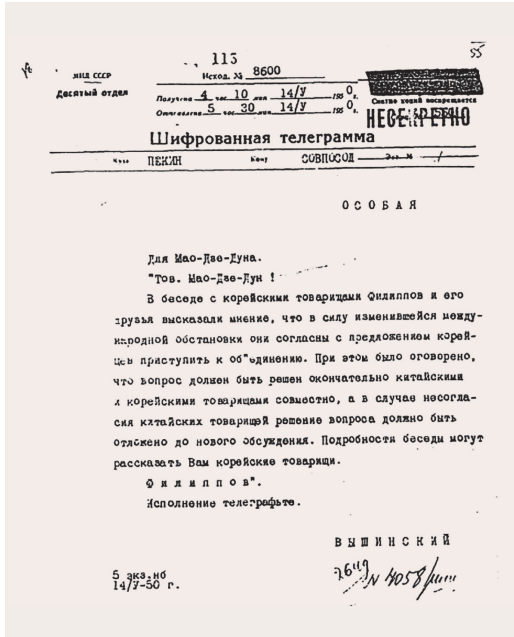
얄타회담 이후 소련은 뤼순과 다렌을 동아시아 내 전략거점으로 재정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었고, 특히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스탈린은 초기에는 어느 쪽이 승리할지 관망하다가, 1948년경 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장악해 나가자 공산당 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이 양쯔강 이남까지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양쯔강 북쪽은 공산당, 남쪽은 국민당이 지배하는 이중구도를 통해 미국-소련 간 세력균형을 유지하길 바랐다. 아시아에서 어렵게 확보한 소련의 전략적 입지를 상실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남침을 통한 통일전쟁을 제안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남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은 가능하나, 북측의 선제공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북한에 파견된 소련대사 시티코프(Terenty F. Shtykov)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시티코프가 1949년 9월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 내 좌파세력은 민중 사이에서 일정한 신망을 얻고 있었지만, 북측이 먼저 남측을 공격할 경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를 명분 삼아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았고, 인민군의 병력과 무장 수준으로는 남한 전체를 단기간 내 점령하는 것이 어려웠다.

스탈린은 조급한 전면전보다는 아시아에서 이미 쌓은 전략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분단구조를 선호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양쯔강을 독단적으로 넘을 수 있었던 반면, 소련의 지원이 절실했던 김일성은 스탈린의 허락 없이 38도선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이 점이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결정적 차이였다.



전쟁 개시에 동의하는 스탈린의 전보 (1950. 5. 14.)

출처: 『한국전쟁(1950.6.25.) 관련 러시아측 문서 입수, 1992-94. 전3권』 V.3 1994.6.20-9월, 공개번호 39816, 외교부 외교사료관

#### 4. 전쟁할 결심

스탈린의 입장이 변한 것은 1950년 1월이었다. 1월 말, 그는 북한 주재 대사 시티코프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김일성의 남한 공격계획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직접 면담할 뜻을 전했다. 이어 2월 2일에는 김일성에게 이와 같은 남침계획을 중국 동지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해 3월부터 4월까지 스탈린과 직접 면담한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감행해도 좋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다. 첫째, 중국의 마오

쩌둥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미국이 개입할 경우 소련은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5월 베이징을 방문했다. 마오쩌둥이 이 사실을 스탈린에게 보고하자, 스탈린은 5월 14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마오쩌둥에게 북한 측의 건의(한반도에서의 전투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탈린이 언급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배경이 거론된다. 첫째, 마셜플랜 이후 유럽에서 냉전이 심화되고 있었던 점이다.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하고 있던 이란에서 철수하면서 전략적 양보의 의사를 보였지만, 서방권은 소련을 향한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스탈린을 불편하게 했다. 둘째,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점, 셋째,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핵독점체제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핵보유는 소련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한편으로는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인 전투원들이 1950년 1월을 전후하여 북한으로 복귀해 재편성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스탈린은 유럽에서 본격화된 냉전에 대응하여 아시아를 전략적 보상의 공간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특히 2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중요한 전환점이였다.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중국은 이 조약을 통해 과거 ‘불평등조약’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했으며, 소련은 이에 호응하여 뤄순, 다렌의 군항, 그리고 만주에서 철도 등의 전략거점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스탈린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략공간, 즉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의 이른바 ‘애치슨라인’에서 한

“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동항 확보라는 오래된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소련 해군이 뤼순과 다렌에 계속 주둔할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

반도가 미국의 방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스탈린에게 청신호를 주었다. 그는 중국과 소련이 배후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이 시점부터 스탈린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다. 1949년경에는 남한 내 좌익유격대 활동이 이미 진압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동항 확보라는 오래된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소련 해군이 뤼순과 다렌에 계속 주둔할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 전쟁이 명백한 ‘침공’이 아니라 ‘반격’으로 인식되도록 철저히 연출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야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중국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마오쩌둥은 이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지만, 스탈린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무기로 잘 무장된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스탈린이 기대했던 부동항 확보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지만, 미국은 아시아에서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으며, 중국과 소련은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소련의 공군력과 경제 지원이 절실했던 북한도 소련에게 밀착할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경색된 국제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흐루쇼프(Nikita S. Khrushchev)를 위시한 소련 새 지도부는 한국전쟁의 휴전에 동의했다.

## 5. 75년 전의 기억과 현재

소련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이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 내전으로 보이길 원했다.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에도 소련은 본격적인 참전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달랐다. 소련 공군은 중국 공군으로 위장하여 공중전에 참여했고,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소련 조종사들은 본국의 국립묘지가 아닌 다렌에 위치한 소련군묘지에 안장되었다. 소련 정부가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 병사들의 죽음조차 숨겨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2024년 6월,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바뀌었다. 푸틴은 방북 전 『로동신문』 기고문에서 “1950~1953년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소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자주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라고 밝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소련 공군이 한국전쟁 당시 비행을 수행한 것을 언급했다. 러시아 정부의 고위인사가 한국전쟁 시기 소련군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은 처음이었다. 공공연한 비밀을 공식화하면서 북한-러시아 관

“

한국전쟁에서 100년 전 크림전쟁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이권을 얻고자 했다면, 2025년 러시아는  
75년 전 한국전쟁에서 소련군의 희생을 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얻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

계가 지닌 역사성을 환기한 것이었다.

2025년 현재 세계질서는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과거 크림전쟁이 러시아가 동쪽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듯,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다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100년 전 크림전쟁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이권을 얻고자 했다면, 2025년 러시아는 75년 전 한국전쟁에서 소련군의 희생을 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얻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도 국제정세의 변화를 노리면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의 쿠르스크 전선으로 파병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역사와 다른 점도 있지만, 크림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는 비슷한 점도 있다. 크림전쟁이 ‘백년 평화’를 서서히 무너뜨린 분기점이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탈냉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계기로 핀란드·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와 충돌 등 유라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지각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국들의 대동맹으로 출발한 유엔체제의 약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이루어지고, 김정은은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과 김정은(2024. 6.)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2024\\_North\\_Korea%E2%80%93Russia\\_summit#/media/File:Vladimir\\_Putin\\_and\\_Kim\\_Jong-un\\_\(2024-06-19\)\\_12.jpg](https://en.wikipedia.org/wiki/2024_North_Korea%E2%80%93Russia_summit#/media/File:Vladimir_Putin_and_Kim_Jong-un_(2024-06-19)_12.jpg)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통해 남한과의 교류 및 미국과의 대화 노선을 일절 거부하고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1950년 1월부터 3월 사이 한국전쟁의 개전을 결정지은 그 시기와 비슷한 거대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4년 6월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 2025년 4월 공식화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과 북한 장성들이 나란히 선 모습은 어쩐지 75년 전의 풍경과 겹쳐 보인다. 이는 반복되는 역사의 구조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다시 글머리에 있는 지도로 돌아가 보자. 이 지도에 달린 댓글에 한 누

---

## 포커스

리꾼이 “북한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라”고 쓴 글을 두고 또 다른 누리꾼이 “러시아는 유럽이면서 아시아”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러시아의 역사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고민해 왔다. 그 역사 속에서 러시아에게 한국전쟁이란 크림전쟁과 러일전쟁의 기억과 연결된다. 지금의 러시아에게 한국전쟁의 기억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긴 역사적 호흡 속에서 기다리는 정책에 익숙한 러시아를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러시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유라시아관의 흐름을 ‘게임’이 아닌 ‘현실’로 냉철하고 두텁게 읽어 내는 눈이 절실한 시대다.



### 옥창준(玉昌竣, Ok, Chang-joon)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정치학 전공 조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에서 냉전기 한국 국제정치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적 관점의 국제정치를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식민적 시각에서 한국외교사와 북한외교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러시아 세계전략의 목표: 강대국으로의 귀환

1991년 12월 26일 건국 69년을 맞은 소련이 붕괴했다.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소련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졌다. 특히 러시아는 충격요법(Shock Therapy)을 통해 소련 시기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했다. 전환 초기 어느 정도 경제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나타난 부작용은 참담했다. 경제 침체, 초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으로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은 하락했다. 경제 악화와 더불어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러시아의 힘은 상당히 감소했고, 국제무대 그리고 옛 소련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하는 추세였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하자 과거 초강대국이라는 기억, 영광 그리고 자부심은 새로운 강대국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원동력이 되었다. 가령 소련이 붕괴한 지 30주년이 된 해에 레

“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하자  
과거 초강대국이라는 기억, 영광 그리고 자부심은  
새로운 강대국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원동력이 되었다.  
”

바다센터(Levada Center)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련 붕괴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65%가 소련의 붕괴에 부정적이었고, 가장 좋았던 시대를 소련으로 답변했다. 또한 러시아 엘리트는 러시아를 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 귀환하려는 열망을 노골적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 엘리트와 국민의 강대국 노스탤지어(nostalgia)는 국내외 정책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러시아의 강대국 지향 대외정책은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 2기 외무부장관인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가 설계했다. 그는 러시아의 독립적 외교정책 수립, 국제사회의 다극질서 구축, 옛 소련 지역에서 영향력 확보와 통합, NATO의 동진 억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는 ‘자주적 강대국 노선’을 채택했다. 이것은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시기에도 이어졌다.<sup>1</sup> 특히 2012년 푸틴 정권 3기를 기점으로 2014년 크림반도(우크라이나명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주적 강대국 대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 세계전략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1 Eugene Rumer, “The Primakov (Not Gerasimov) doctrine in Action,” Carnegie(<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19/06/the-primakov-not-gerasimov-doctrine-in-action?lang=en>, 검색일 2025. 5. 9.).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엘리트는 가장 큰 전략적 장애물을 미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질서를 다극질서로 변화시키기 위해 서방(The West)과 대립하고, 비서방(Non-Western Bloc)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이중주를 선보이고 있다.

## 2.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 협력과 적대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미국이 NATO의 동진,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등을 통해 자국을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 러시아 고유의 문명권을 파괴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빈번했던 외세 침략이라는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적성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옛 소련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가 붕괴한다면, 친서방·반러시아 정부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NATO가 러시아를 포위하는 경우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이 항상 갈등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은 아니다. 가령 1993년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틀간 개최하여 새로운 동반자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 9·11테러가 발생하자 누구보다 먼저 푸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테러와의 전쟁에 공조하여 미국을 지원할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다.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는 분명히 다르기에 본질적으로 양국의 관계는 갈등관계에 머물 수

“

러시아와 서방은 협력의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하는 관계라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러우전쟁 이후 상호 적대감으로  
확장되어 러시아의 반서방 대외정책 수립·실행에  
동력이 되고 있다.

”

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결국 러시아가 지향하는 다극화된 국제질서는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상호 적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와 비교하여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비교적 협력 가능성이 있었다. 유럽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 정도를 러시아산에 의존했고, 러시아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부터 발생한 상호 불신감은 2022년 러우전쟁 개전으로 상호 적대감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유럽은 에너지 분야에서 탈러시아화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비서방 국가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첨단기술 및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다.

정치·역사·문화적으로 러시아와 서방은 다르다. 특히 냉전이라는 과거 역사는 양측의 정치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기억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서방은 협력의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하는 관계라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러우전쟁 이후 상호 적대감으로 확장되어 러시아의 반서방 대외정책 수립·실행에 동력이 되고 있다.

### 3.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

푸틴 3기 이후 러시아는 서방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력지역으로 아시아를 선택하며, 이른바 ‘신동방정책’을 수립·실행했다. 신동방정책은 시베리아와 극동지방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협력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도 다분했다. 주요 협력국은 서방의 에너지시장과 거대 투자자본금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예전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양자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러우전쟁 이후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등과 관계가 악화되며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졌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2,448억 달러로 러우전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그리고 5G, 양자통신, 위성항법시스템, AI, 반도체, 자원 관련 엔지니어링, 북극 개발,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주지하듯 중국이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국이지만, 러시아가 완전히 중국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은 부담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인도, 튀르키예, 이란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자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17년 인도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2023년 이란도 SCO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물론 인도가 SCO에 가입했을 때 파



SCO 국가 정상회의(사마르칸트, 2022. 9. 16.)

출처: President of Russia(<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361>)

키스탄도 동시에 가입했고, 이란의 SCO 가입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SCO 회원국 증가가 완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가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독주를 선제적으로 제어하려는 의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측면에서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는 인도에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것은 2025년 기준 인도 전체 원유 수입의 36%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튀르키예는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에너지 수입 중 천

연가스 59.14%, 그리고 석유 49.93%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서방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수출 다각화를 실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선택이지,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도, 튀르키예, 이란 등은 시장이 거대하고 국제위상이 낮지 않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란 등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다른 지역 강대국과의 협력도 병행하는 전략적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 4. 한반도의 선택: 갈등인가 협력인가

최근 세계 각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이재명 정부 출범(2025), 미국의 트럼프 재집권(2025), 일본의 이시바 총리 집권(2024) 등 공교롭게도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 변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러우전쟁의 장기화, 북한군의 러우전쟁 개입,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미국의 이란 폭격 등 중동 지역 분쟁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선 러시아 전략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갈등을 유발하는 대외전략보다 협력을 추구하는 대외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력적 대외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면, 점차 갈등을 유

“  
과거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경제·안보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한반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발하여 국익을 얻는 방식으로 전략이 변화한다. 가령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0년대에 유화정책이 유효하지 않자 에너지를 무기화했고, 이것도 효과가 없자 크림반도 병합, 러우전쟁까지 점차 강경한 전략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래 러시아는 비교적 한국에 협력적 전략, 특히 우호적인 경제관계 구축을 추구했다. 그런데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한국에 대한 협력적 지정학 전략이 갈등적 지정학 전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연대 중 가장 느슨한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고, 북한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이익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성국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기술력을 제공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핵위험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를 안정화한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과거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경제·안보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한반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정체되었던 소규모 교류를 복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25년은 한러 수교 35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를 시작

## 포커스

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 더 나아가 정상회담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우전쟁 이전에는 러시아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 극대화가 우선되었다면, 지금은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에 교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정일, 2019,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2.
- 김진하·현승수, 2025,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 박정호·강부균·강태호·제성훈, 2024,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전략과 정책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24-2.
- 우평균, 2025, 「러시아의 전략문화 및 군사전략의 특성과 우크라이나 침공」, 『국방연구』 68-2.
- 이주연, 2025,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 『영토해양연구』 29.
- Eugene Rumer, “The Primakov (Not Gerasimov) doctrine in Action,” Carnegie(<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19/06/the-primakov-not-gerasimov-doctrine-in-action?lang=en>, 검색일 2025. 5. 9.).



### 이주연(李柱衍, Lee Ju-yeon)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러시아 외교정책, 유라시아 지역 분쟁, 한러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2025),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인의 집단감정 연구」(2024), 「카자흐스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요인 분석: 브레처 모델을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지켜본 80주년 러시아 전승절

최인영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 1. 다르긴 달랐던 80주년 전승절

러시아에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온 지 2년이 됐다. 2023년 8월 중순에 모스크바에 왔으니 러시아의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행사 현장에는 2024년과 2025년 두 번 다녀올 수 있었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옛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이라며 매년 5월 9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독일군은 1945년 5월 8일 오후 11시 1분부터 모든 적 대행위를 중단한다는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유럽보다 동쪽에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자정이 지난 시점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5월 9일이 종전일이 됐다. 러시아는 소련군과 민간인의 엄청난 희생으로 나치를 막아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전쟁(大祖國戰爭,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이라고 부르고 전승절을 중요한 국경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소련인은 2,700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전승절이 다가오면 러시아 곳곳은 ‘승리(победа)’ 문구로 장식된다. 거리에는 ‘승리’ 현수막이 걸리고, 상점에는

## 체험! 역사현장



전승 80주년 문구로 장식된 모스크바 거리(최인영 촬영, 2025. 5. 5.)

‘승리’ 포스터가 붙는다.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는 러시아군의 각종 부대와 무기가 총동원되는 열병식이 열린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승 80주년인 만큼 성대한 열병식이 열렸다. 러시아는 10년씩 꺾어지는 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하 러우전쟁)<sup>1</sup>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런 점에서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전승

1 러시아는 이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언론에 ‘전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

작년과 올해 전승절 취재 환경은 완전히 달랐다.  
일단 붉은광장 인근 마네시광장에 국제프레스센터가 등장했다.  
79주년이던 작년에는 이처럼 취재진을 위한 별도 업무공간은  
없었다. 국제프레스센터는 여러 국가의 기자들로  
붐벼 국제행사 분위기가 났다

”

절 열병식 현장을 지켜본 것은 의미가 있었다. 러시아가 80주년을 어떻게 특별하게 기념하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과 올해 전승절 취재 환경은 완전히 달랐다. 일단 붉은광장 인근 마네시광장에 국제프레스센터가 등장했다. 79주년이던 작년에는 이처럼 취재진을 위한 별도 업무공간은 없었다. 국제프레스센터는 여러 국가의 기자들로 붐벼 국제행사 분위기가 났다. 이는 크렘린궁이 20여 개국 정상을 열병식에 초대할 영향이었다. 지난해에도 참석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 옛 소련 국가 정상들은 물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룰라(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림(To Lam)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등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신흥 국가 지도자들이 이 기간 모스크바를 찾았다. 유럽의 친러시아 지도자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도 방문했다. 이들 국가의 기자들도 자국 지도자 행보를 취재하기 위해 대거 모스크바에 출장을 왔다. 판이 커진 만큼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서방 국가 기자들도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취재 경쟁은 지난해와 비교해 훨씬 치열해졌다. 전승절 당일, 새

## 체험! 역사현장



국제프레스센터에 입장하기 위해 몰린 기자들(왼쪽)과 전승 80주년을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오른쪽)(최인영 촬영, 2025. 5. 9.)

벽에 일어나 지하철 첫차를 타고 미디어 전용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허가된 차량만 붉은광장의 '통제구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전용 버스를 타고 텅 빈 모스크바 시내 도로를 달려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지만, 너무 많은 기자들이 몰린 데 더해 보안 검문검색이 철저해 입장이 지연됐다. 특히 프레스센터 정문이 한 곳만 개방돼 있어 병목현상까지 벌어졌다. 열병식 현장 취재석은 취재 온 기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은 열병식을 직접 보지 못하고 프레스센터 대형스크린을 통해 방송 중계를 시청하거나 통제된 도로 인근에서 붉은광장을 향해 이동하는 무기와 군인의 행진을 지켜봐야 했다. 작년에는 별다른 혼란이나 혼

선 없이 거의 모든 기자들이 여유롭게 붉은광장 취재석 출입증을 받았다.

러시아는 이렇게 많은 손님을 초대할 잔치에 불미스러운 일로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안을 강화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승절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전후 사흘간(5월 8~10일) 일시 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붉은광장 인근 도로는 전승절 수일 전부터 전면 통제됐다. 5월 초부터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에서 잦은 모바일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불편을 겪었다. 드론 등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전승절을 앞두고 모스크바를 향해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오다가 격추되기도 했다. 모스크바 주변 공항들도 드론 공격을 받아 이착륙이 대거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승절 당일에는 열병식 시작과 함께 붉은광장 주변 이동통신이 전면 차단됐다. 시민의 불편을 뒤로 하고 전승절 열병식 행사 자체는 러시아가 계획한 대로 문제없이 치러졌다.

## 2. 러시아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한 이유

전승절이 러시아인과 그들의 역사에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올해는 러시아가 3년 이상 러우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승절 80주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과 각종 행사를 통해 군사적·외교적으로 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사실 러시아 전승절 행사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열병식이 아예 취소됐다.

“

전승절이 러시아인과 그들의 역사에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올해는 러시아가  
3년 이상 러우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승절 80주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

2022년에는 열병식이 다시 열렸지만 러시아는 해외 정상을 초대하지 않았다. 러우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여 지난 시점이어서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가운 시점이었다. 2023년 열병식에는 옛 소련 국가 정상들만 참석했다. 2024년에는 옛 소련 국가에 더해 쿠바, 라오스 등 일부 우호 국가 정상이 초대받았다.

열병식에 동원된 군사장비와 군인의 규모도 축소됐다. 2020년에는 1만 4,000명의 군인이 붉은광장을 행진했지만, 2022년에는 1만 1,000명, 2023년에는 8,000명, 2024년에는 9,000명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퍼레이드에 선보인 무기 수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전차는 소련제 T-34 1대만 등장했다. 전장에 보급할 병력·장비 부족을 겪는 러시아가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열 여력이 없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규모 해외 귀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러시아는 80주년에 맞춰 올해 다른 분위기를 보이려고 했다. 27개국 정상이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약 15개국 정상과 나흘간 연속 정상회담을 했다. 주 귀빈으로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거의 하루종일 회담했다. 회담장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를 ‘동지’라고 불렀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 일방주

## 체험! 역사현장

의와 조류를 거스르는 강권(배권)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이는 서방과 대립하는 러시아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올해는 붉은광장을 가로지른 군인·무기 행렬 규모도 커졌다. 러시아군뿐 아니라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몽골, 미얀마 등 우방 13개국의 군부대가 행진했다. 행진에 총 1만 1,500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장비는 2022년 이후 최대인 130대 이상이 동원됐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방공미사일 시스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Iskander SRBM),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Yars ICBM) 등이 지나갔다. 현대전의 양상을 바꿨다는 드론(무인기)도 등장했다. 드론이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의 비행이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결국 러시아는 올해 전승절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견제하면서 러시아가 세계적 위상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올해 전승절 연설 주제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었다. 그는 “진실과 정의는 러시아 편이며, 온 나라와 모든 국민이 특별군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하는 탱크 무리  
(최인영 촬영, 2025. 5. 9.)

“  
러시아는 올해 전승절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견제하면서 러시아가 세계적 위상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작전에 참전한 이들을 지지한다”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 러시아가 나치즘을 막아내고 있다는 주장도 폄하됐다.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뒀듯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치 세력에 맞서고 있다는 의미였다. 우크라이나 내 신나치 세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러우전쟁을 시작한 명분 중 하나다. 이는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풀이됐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신속한 전쟁 종식을 목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중재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을 통해 승리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자국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설은 러시아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전승절의 역사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 푸틴 대통령은 성대한 전승절 행사가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해 러우전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3. 전승절로 다시 한 번 강조된 북러 밀착

‘북러 밀착’의 맥락에서도 올해 전승절은 주목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전승절에 맞춰 러시아를 방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 올해 김 위원장이 답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승절이 유력한 방러 시기로 꼽혔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전폭 지지하는 만큼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붉은광장에 나란히 서서 동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전승절을 약 보름 앞둔 4월 26일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Kursk)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군이 이 작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돼 있다는 각종 정황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쿠르스크전투가 일단락되자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하는 성명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관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김 위원장이 전격 방문할 경우 시 주석과 함께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장면이 연출될 터였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전승절을 사흘 앞두고 북한에서 대사급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발표하여 김 위원장의 불참을 알렸다. 다만 크렘린궁은 “조만간 알게 될 또 다른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북러 접촉 가능성을 예고했다. 실제로 전승절 당일 북한과 러시아는 파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상장)을 비롯한 북한군 최고위급 장성들이 열병식에 참석했다. 관중석에 있던 북한 대표단은 열병식 후 붉은광장으로 내려와 푸틴 대통령과 만나 포옹하고 악수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이들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에 직접 참여한

“

관중석에 있던 북한 대표단은 열병식 후  
붉은광장으로 내려와 푸틴 대통령과 만나 포옹하고 악수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를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다.  
전승절 이후에도 러시아와 북한은 “전장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운운하며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

장성들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그들과 소통한 것은 영웅적 공로를 인정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옹으로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북한의 전폭  
적인 지지를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다. 전승절 이후에도 러시아와 북한은  
“전장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운운하며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세계는 러시아와 북한의 거리낌 없는 군사 밀착을 우려스러운 시선으  
로 바라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  
러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전승절에 긍정의 기운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최인영(崔仁瑛, Choi, In-young)**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2008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IT, 스포츠, 코로나19 등을 취재하다  
가 2023년 8월부터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러시아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다.

# 한국과 베트남이 중국과 이웃한 역사를 말하다

## 재단-베트남사회과학원 국제학술회의

김철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다. 2024년 기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무역국이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흑자 나라다. 한편,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한자문명권이고 중국과 인접하며 독자성을 유지해 온 나라다. 지난 5월 22일 ‘한국과 베트남, 중국과 이웃하기’란 주제로 베트남사회과학원(VASS)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재단 대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베트남사회과학원은 베트남 정부 산하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이다.

재단은 설립 초창기인 2009년부터 베트남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를

- \* 이 글은 해당 학술대회에서 필자의 토론문과 재단의 2025년 7월호 『뉴스레터』에 실린 저자의 「학술회의 참가기: 한국과 베트남, 중국과 이웃해 온 역사를 나누다」의 내용을 가져왔다.

“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중국과 이웃해 왔다는 사실은  
지금처럼 과거에도,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으로 전형적이지 않은 역사적 과정에 속한다.

”

이어왔으며, 2024년 새로운 MOU를 체결하여 올해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교류 배경에는, 중국·일본과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이 베트남과 같이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나라와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2. 강대국과 이웃해 온 역사

한국과 중국은 이웃 나라다. 베트남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중국과 이웃해 왔다는 사실은 지금처럼 과거에도,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으로 전형적이지 않은 역사적 과정에 속한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체들이 사라졌다. 14세기 유럽에는 1,000개가량의 정치체가 있었다. 그러다가 프랑스혁명 직전에 350개로,<sup>1</sup> 그 후 독일과 이탈리아 통일과 양차대전이라는 격변을 거쳐 지금 유럽에는 50개가량의 주권 국가

1 Mark Greengrass, 1991, *Conquest and Coalescence: The Shaping of the State in Early Modern Europe*, London: Hodder Education Publisher, 1-2.

“  
동아시아사 역사가 오드 아르네 베스타는  
한반도에 독립적인 ‘민족’이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대중 관계에서 활용한 ‘의로운’ 지식체계를 꼽는다.  
”

만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라시아 각지의 제국들은 인접한 지역을 정복하며 팽창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과 베트남이 중국과 이웃하면서도 독자성을 오래 유지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비교사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며,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 구성이 우리에게 열어 놓은 논의 영역 중 하나다.

동아시아사 역사가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는 한중 관계 600년사를 조망하는 책 『제국과 의로운 민족』은 유용한 논점들을 제시한다.<sup>2</sup> 그는 한국이 중국 제국 속으로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책 제목이 시사하듯, 그는 한반도에 독립적인 ‘민족’이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대중 관계에서 활용한 ‘의로운’ 지식체계를 꼽는다. 여기서 ‘의로움’은 성리학을 통해 형성되기도 했지만, 그 함의는 현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두 나라가 공존할 당위적 관계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민족은 네이션(nation)보다는 에스닉(ethnic)을 지칭하며, 문화적 특징들로 정의하기보다는 관계의 한 측면으로 이해한다.<sup>3</sup> 이러한 사실과 시각을 염

2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옥창준 역, 2022, 『제국과 의로운 민족: 한중 관계 600년사-하버드대 라이샤워 강연』, 너머북스.

3 Fredrik Barth, 1969, "Introduction," *Ethnic Group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Little Brown. 인류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주의 연구서로는 Thomas Hylland Eriksen, 2010, *Ethnicity and Nationalis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Pluto Press 등이 있다.

두에 둔다면 발표의 구성과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 3. 학술회의 주제: 한국과 베트남, 중국과 이웃하기

김인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총 네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적 범위와 주제를 다뤘다.

Discussion of  
Dr. Jang Jeongsoo's paper "Shared Frontier, Demarcated Border: Chosŏn-Qing relations and the origin of the Territory"

And  
Dr. Le Thuy Linh's paper "The border issue between Đại Việt and China from the late 16<sup>th</sup> century to the late 18<sup>th</sup> century"

Discussant: Prof. Dr. Nguyen Duc Nhue, VASS

Discussion of Dr. Jang Jeongsoo's paper

*"Biên cương chung, ranh giới phân định: Quan hệ Triều Tiên – Thanh và nguồn gốc của lãnh thổ"*

Trong lịch sử, cũng như Việt Nam, Triều Tiên có mối quan hệ láng giềng với các triều đại phong kiến Trung Hoa và có một thời gian dài là phiên thần triều cống Trung Hoa.

Lịch sử bang giao, lịch sử đấu tranh với quốc gia láng giềng Trung Hoa để bảo vệ chủ quyền lãnh thổ, đặc biệt là vùng biên giới, Việt Nam và Triều Tiên cũng có những nét tương đồng. Trong tham luận của mình, tác giả Jang Jeong - su đặc biệt lưu ý đến vấn đề biên cương chung trong mối quan hệ Triều Tiên với nhà Thanh Trung Quốc (từ thế kỷ XVII đến thập niên đầu thế kỷ XX), đồng thời tìm hiểu sâu về vấn đề nguồn gốc lãnh thổ vùng biên giáp ranh giữa hai nước Triều Tiên và Trung Hoa trong giai đoạn lịch sử này.

Lịch sử Trung Quốc từng chứng kiến quá trình lập quốc từ nhiều tộc người khác nhau (phi Hán tộc). Bên cạnh các triều đại như Hán, Đường, Tống, Minh (do người Hán kiến lập) còn có các triều đại khác như Nguyên (do người Mông Cổ kiến lập), triều Thanh (do hậu duệ của tộc Nữ Chân kiến lập). Ngoài ra, lịch sử vương triều Trung Quốc còn được biết đến các triều đại Liêu, Kim, Tây Hạ... do các tộc người "phi Hán" kiến lập.

Triều Tiên (nước Cao Ly xưa) có quan hệ sớm với Trung Hoa, có vùng lãnh thổ biên cương rộng lớn giáp ranh với Trung Quốc. Tác giả cho biết, trong thời Minh (1368-1644) biên cương phía tây và bắc của Triều Tiên có thể được chia thành khu vực: khu vực hạ lưu sông Áp Lục (quan hệ trực tiếp với lãnh thổ do nhà Minh quản lý); khu vực thượng lưu sông Áp Lục và sông Đồ Môn (giáp ranh với địa bàn tộc người Nữ Chân quan

재단 장정수의 발표에 대해 응우옌득누에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었던 '국경'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할 것을 제안했다.

세션1에서는 응우옌꾸옥신이 송과 딘 왕조 간의 외교관계를 역사서 비교를 통해 분석했고, 우성민은 당·송대 법률에 나타난 외국인 규정을 검토하여 당시 고구려인·고려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조명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레꽝찬이 15세기 레 왕조가 ‘트란 카오’라는 인물을 활용하여 명과의 외교적 입지를 다진 사례를 발표했으며, 구도영은 명에 파견된 조선 사신단의 목적과 구조를 통해 조선의 외교전략을 살펴봤다.

세션3에서는 국경 인식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했다. 레투이린은 17~18세기 베트남과 중국 간 국경 문제를 다뤘고, 장정수는 조청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강역 개념과 경계 확정의 의미를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4에서는 19~20세기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조명했다. 부티 투지양은 20세기 초 중국이 베트남의 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뤘으며, 신효승은 청일전쟁 이후 한중 관계의 변화와 1899년 통상조약 체결 과정을 통해 외교지형의 재편 양상을 설명했다.

#### 4. 동북아 역사갈등에는 비교사적 논의가 필요하다

2026년 재단과 베트남사회과학원의 학술회의는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베트남사회과학원 연구자들이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재단의 연구위원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이어 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베트남과의 학술교류에는 동북아 역사갈등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재단의 목표가 있다. 한중일은 각자 고유한 역사적 발전과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자국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동북아 역사에 관한 인식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역사 이해는 차이점뿐 아니라 공통점도 함께 바

“  
한중일은 각자 고유한 역사적 발전과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자국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동북아 역사에 관한 인식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역사 이해는 차이점뿐 아니라  
공통점도 함께 바라보는 비교적 시각이 필요하다.  
”

라보는 비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현재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역사갈등에 대한 대응은 세 나라 기관 간의 노력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과의 학술교류처럼 더 넓게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비교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동북아의 역사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김철기(金哲起, Kim, Chulki)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뉴욕주립대학교 빙햄튼캠퍼스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세기 영제국의 정치와 정치경제를 영국과 아일랜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뉴욕주립대학교 빙햄튼캠퍼스,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쳤다. 미국 헌팅턴도서관의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교환 펠로우, 경희대학교 사학과 BK 글로벌 문명교류사 교육연구팀에서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다.

# ‘새로운’ 과거의 ‘발견’이 주는 고민을 마주하다

##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국무조정실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49.8%는 광복 80주년 관련 기념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에 응답자의 35.2%가 관심을 표했다. 응답자의 31.1%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했다. 14.1%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자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학술행사가 열렸다. 광복회는 작

“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

년 12월에 이미 ‘광복 80주년 맞이 연구자 대회’를 열어 현재의 독립운동사 연구를 고찰하고 통일담론을 재검토했으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광복 후 도시민의 삶을 복원한다는 취지로 ‘근대도시열전’이라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세계의 망명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란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열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필리핀 등 각국의 망명정부 활동 속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치를 정립했다. 이렇듯,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는 각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일상사의 복원이나 세계사적 조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재단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8월 4~5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 학술회의는 한국의 식민주의 극복과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새롭게 조명했다. 기조 강연과 7개의 패널 발표에 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활동하는 45명의 전문가가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로 참가한 규모가 큰 행사였다. 전체 25개 발표 중 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자의 발표가 절반이 넘었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외국 사료를 인용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의 비

“

전체 25개 발표 중 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자의 발표가 절반이 넘었고,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외국 사료를 인용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의 비율도 높았다.

”

프로그램		8월 5일(월), 2일자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시간	일정	시간	일정
개회식 09:00 - 09:25	개회사: 연도경(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환영사: 박지현(충북대학교 사서장 이사장) 주최: 유물상(서울대학교 출판)	09:00 - 10:30	사회: 장영애(서울대학교) 발표 1. <b>제헌헌법(1948-1950) 한국의 정치체제</b> 연도경(서울대학교) 발표 2. <b>국유채권이라는 오해: 제헌국회의 이후의 종전</b> 고종원(서울대학교) 발표 3. <b>비상헌법과 한국 내통령체제의 형성</b> 서희원(서울대학교) 토론: 이윤환(부산대학교), 장민우(부산대학교)
09:30 - 10:30	기초강연: 스티븐 부트킨(스탠퍼드대학교) <b>스탈린의 한국-계산, 계산 혁명, 그리고 그 결과</b> 사회: 김호준(중앙대학교)	10:45 - 12:40	사회: 김호준(중앙대학교) 발표 1. <b>1948년 박종석 소환권 행위의 헌법적 정당성</b> 이희선(고려대학교) 발표 2. <b>사법부의 생애: 1945-1950년 유럽 사법제도의 변천</b> 김호준(고려대학교) 발표 3. <b>두 혁명의 영웅: 1945-1950년 중국 내전 속 연안파의 북한 혁명의 한국 이후인들</b> 김민우(부산대학교) 발표 4. <b>주방장 사건의 본: 북한 국가 형성: 1945-1950년 원산 시계열 중심으로</b> 한정호(중앙대학교) 토론: 장민우(부산대학교), 장영애(서울대학교)
10:40 - 12:40	<b>일본사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치문화</b> 발표 1. <b>경제 개발과 한일국교 정상화의 시야</b> 이희선(고려대학교) 발표 2. <b>군사적 발전과 비군사적 제정: 탈식민체제의 한일 기교와 지식인</b> 대쓰네나 모토카즈(도호쿠국립대학교) 발표 3. <b>종사관으로서의 일본인: 한국 독립과 일본제국의 영향</b> 유지영(한양대학교) 발표 4. <b>항구에서의 일본인: 1945-1947년 부산과 항구에서의 관점에서</b> 한나 제케트(이탈리아대학교) 토론: 조윤아(중앙대학교), 정지희(서울대학교)	12:40 - 14:20	환영 식사 사회: 함태원(서울대학교) 발표 1. <b>제국의 군인과 통치자의 정체성: 존 허치, 이승만, 그리고 미군정의 정치사</b> 함태원(서울대학교) 발표 2. <b>분단 정세의 위기: 지역 정세의 정동: 1940년대 후반의 한국</b> 왕태원(고려대학교) 발표 3. <b>1948년 서울과 1949년 대구: 10.1 이전의 계급성</b> 유재선(중앙대학교) 토론: 김호준(중앙대학교), 이항범(한국학중앙연구원)
12:40 - 14:20	환영 식사 사회: 신현배(한국대학교)	14:20 - 15:50	사회: 함태원(서울대학교) 발표 1. <b>미군정기 이통령체제의 교과서</b> 왕태원(고려대학교) 발표 2. <b>한교교류와 한교교류의 시야: 국제적 관점 후의 오산성</b> 정종윤(서울대학교) 연인의 복원과 교육 및 대학의 재건 발표 3. <b>문화정책의 수립과 '결핵대 신화'의 형성</b> 윤지영(한양대학교) 토론: 함태원(서울대학교)
14:20 - 15:50	<b>미군정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b> 발표 1. <b>제국의 군인과 통치자의 정체성: 존 허치, 이승만, 그리고 미군정의 정치사</b> 함태원(서울대학교) 발표 2. <b>분단 정세의 위기: 지역 정세의 정동: 1940년대 후반의 한국</b> 왕태원(고려대학교) 발표 3. <b>1948년 서울과 1949년 대구: 10.1 이전의 계급성</b> 유재선(중앙대학교) 토론: 김호준(중앙대학교), 이항범(한국학중앙연구원)	16:00 - 18:00	사회: 남상규(중앙대학교) 발표 1. <b>수용소의 지형: 본을 통치자의 권력과 정책</b> 박익규(충북대학교) 발표 2. <b>역사 단편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역한 제국의 공간 통치의 영향</b> 도우근(이화여자대학교) 발표 3. <b>전쟁 단편: 이념의 탈락과 자기주조로서의 소위</b> 박정혜(중앙대학교) 발표 4. <b>통치에서 내전까지: 통치사회의 기저체제의 재검토</b> 정지희(서울대학교) 토론: 서준호(중앙대학교), 함태원(서울대학교), 박이규(중앙대학교)
16:00 - 18:00	<b>이승만에 관한 논쟁</b> 발표 1. <b>이승만의 자유주의의 재고찰</b> 김정혜(고려대학교) 발표 2. <b>해방전쟁 이후의 이승만의 군사 외교의 특성</b> 차원지(한양대학교) 발표 3. <b>미군정 하에서 이승만의 안목: 정부 수립 계단</b> 조윤아(중앙대학교) 발표 4. <b>신화 속의 이승만: 없다</b> 대규아드 빌드(프랑스유니베르시티대학교) 토론: 이윤환(부산대학교), 함태원(서울대학교)	18:00 - 19:00	환영 식사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2025. 8. 4~5.)

율도 높았다.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새로운 시각 모색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획된 학술회의였다.

규모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이번 학술회의가 해방공간의 역사(1945-1950)를 다각적·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것이다. 해방공간은 식민주의 해

“  
시간, 공간, 그리고 주체 면에서  
해방공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낸 학술회의였다.  
”

체를 위한 시도가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새로운 국가 수립에 사회 각 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한 한국사의 전환기였다. 분단과 냉전, 과거사 청산 등 동북아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 문제가 잉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울퉁불퉁한 시대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역사 인식의 복합성을 인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그 실제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위로는 정부와 의회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고, 아래로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일본으로 돌아간 귀환자를 다루었다. 남북 국가 건설 과정의 차이를 다루는 한편, 부산, 후쿠오카, 대구, 원산 등 특정 지역사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태평양전쟁과 만주 이주 등 광복 이전 시기를 소환하고, 일본군‘위안부’ 담론과 동아시아 기억체제(memory regime)가 변화하는 현재를 논하기도 했다. 시간, 공간, 그리고 주체 면에서 해방공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낸 학술회의였다.

## 2. 학술회의 토크아보기

기조 강연은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스티븐 코트킨(Stephen Kotkin)이 맡았다. ‘스탈린과 한국: 계산과 계산 착오, 그리고 그 결과’를 주제로 스탈린의 결정이 한국



제1패널 토론 모습(2025. 8. 4.)

정세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강연이었다. 특히 한반도 분단을 중국-타이완/홍콩, 남북 베트남, 일본-사할린 분단의 역사적 맥락에 위치 지음으로써, 강대국 간 갈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현대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제1패널은 일본사의 관점으로 한국의 탈식민화를 검토했다.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와세다대학)는 1945년 이후 한일 관계를 청구권과 ‘역청구권’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마쓰타니 모토카즈(松谷基和, 도호쿠가쿠인대학)는 전후 한국에서 등장한 진보적 기독교운동의 기원을 논했다. 최덕효(메릴랜드대학교)는 “1945~1949년 일본 출판물의 가장 포괄적 사료”로 평가받는 ‘고든 W. 프랜지 컬렉션(Gordon W. Prange Collection)’을 활용해 전후 일본인 송환자 담론을 다뤘다. 한나 셰퍼드(Hannah Shepherd, 예일

대학교)는 종전 이후 조선인 귀환과 일본인 송환을 부산과 후쿠오카를 사례로 현장의 시각에서 묘사했다. 토론에서 조운수(재단)는 ‘역청구권’은 처음부터 소멸되었기 때문에 발표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정지희(서울대학교)는 부산과 하카다의 지역사가 국가 서사에 잠식됐던 것은 아닌지 물었다.

제2패널은 미군정기 한국 정치와 사회를 다뤘다. 문유미(스탠퍼드대학교)는 후버연구소의 굿펠로우문서(Goodfellow Papers)와 하버드엔칭도서관 버치문서철(Bertsch Papers) 등을 활용해 여운형과 조선총독의 관계 및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했다. 임채성(릿쿄대학)은 1940년대 후반 한국 경제의 형성 과정을 일본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전했다. 이택선(명지대학교)은 ‘취약국가론’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과대국가론’을 비판하며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10·1사건의 의미를 논했다. 토론에서 김명섭(연세대학교)은 그동안 ‘과대국가론’이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여운형과 조선총독과의 관계는 ‘내통’의 종류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3패널의 주제는 이승만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양성익(애리조나주립대학교)은 일민주의로 불리는 이승만의 정치사상이 반자유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차현지(독립기념관)는 태평양전쟁기 이승만이 전개한 대미 군사외교의 내용과 의의를 밝혔다. 오영섭(연세대학교)은 이승만의 정읍선언을 분단론이 아닌 현실대응전략이란 관점에서 바라봤다. 데이비드 필즈(David Fields,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는 신탁통치론의 실패와 한반도 분단 등이 미소 간 이념 대립이 아닌 국제 상호 불신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이철순(부산대학교)은 이승만을 준민주주의(semi-democratic)의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정병준(이화여자대

학교)은 기존에 발표된 연구성과가 미반영되어 이승만의 정읍선언 관련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제4패널은 제헌국회기(1948~1950)의 헌법과 정치체제 등 제도의 형성을 논했다. 안도경(서울대학교)은 제헌국회가 장기적 제도 수립과 학습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고중용(서울대학교)은 제헌국회의 이념 지형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서희경(서울대학교)은 제헌국회의 대통령제 채택 배경을 설명하고 그 한계를 조명했다. 토론에서 이승렬(역사문제연구소)은 제헌국회 시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갈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했음을 지적했고, 권기돈(부산시청)은 제헌국회에서 제안한 독립성을 지닌 국무의원제가 대통령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제5패널은 북한의 국가 형성 과정을 밝혔다. 이휘성(고려대학교)은 인민위원회와 김일성 등에 초점을 맞춰 광복 직후 북한사를 조명했다. 발라즈 살론타이(Balázs Szalontai, 고려대학교)는 북한의 국가 형성을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클라우디우스 김(Claudius Kim, 스탠퍼드대학교)은 중국혁명을 경험한 만주의 조선인들이 북한의 국가 건설에서 보인 행위주체성(agency)에 주목했다. 현명호(재단)는 원산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국가 형성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논했다. 토론에서 문미라(서울시립대학교)는 국내 학계와 해외 학계가 연구사나 사료의 공유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서로 보완해 나갈 것을 요청했고, 김태운(서울대학교)은 인민위원회가 총독부의 승인하에 조직되었다는 평가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서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6패널은 미군정기 언어정책과 교육제도를 분석했다. 허재영(단국대학교)은 식민주의로부터의 언어 회복을 주제로 이 시기 언어정책과 교과

서를 살폈다. 정준영(서울대학교)은 민족교육과 민주교육의 차이를 교육행정가 오천석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윤해동(한양대학교)은 ‘문리대 신화’ 현상에서 보인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밝혔다. 토론에서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당시 교육정책을 주도한 문교부 내부의 의견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7패널은 전쟁범죄, 배상,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하였다. 바락 쿠슈너(Barak Kushner, 캠브리지대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군으로 복무한 조선인을 회색지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담론구조와 기억정치를 논의했다.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학)는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강압적·폭력적 형태를 띤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박정애(재단)는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피해자성을 해체하고 피해자 중심 역사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지현(서강대학교)은 화해를 좌절시켜 온 동아시아 기억체제 형성의 중심에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서종진(재단)은 역사부정론자에게 맞서는 데 이번 발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고, 마이클 김(연세대학교)은 피해자 자신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3.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관한 기억 문제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역사 현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관한 기억 문제를 다룬 제1패널과 제7패널이 이와 관련이 깊다.

전쟁과 식민지배에 관한 기억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송환자 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기억체제’란 개

“  
기억체제의 내재적 균열이 가져올 담론적 가능성은  
동아시아 역사 현안과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념이 다시 제기되었다. 국제관계와 국내정세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현재 동아시아의 이분법적 기억정치의 문제를 환기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발굴과 실증만큼, 혹은 오히려 그보다 더, 기억정치의 원리와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도 이어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이번에 논의된 주제는 일본군‘위안부’ 역사쓰기(박정애), 패전 후 재조일본인 송환자들이 남긴 기록(최덕효), 그리고 조선인 BC급 전범(바락 쿠슈너)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진행된 일본군‘위안부’ 인터뷰와 그 독해는 강제동원과 강제로 위안소에서 생활한 사실의 확인에 매달렸다.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피해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이 ‘피해자성’이 개인의 과거 구술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앞서 살펴본 기억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술 중에는 ‘피해자성’ 담론의 촘촘한 그물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는 발견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다. 이는 기억체제의 지배가 불완전성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억체제의 내재적 균열이 가져올 담론적 가능성은 동아시아 역사 현안과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재조일본인이 본국으로 송환된 후 남긴 조선에 대한 기록 역시 기억체제의 견고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균열을 엿보게 해준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을 평온한 풍경으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성으로, 맛있는



제7패널 바락 쿠슈너의 발표 장면(2025. 8. 5.)

음식으로, 미화해서 회상했다. 조선인 개개인에 대한 기억은 이름도 없고 해상도가 낮은 사진처럼 불투명했다. 오히려 패전국 국민이 된 자신들을 차별하려는 성난 군중으로 조선인들을 묘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되고 ‘제국의 기억상실(imperial amnesia)’이 발생한 순간이다. 검토된 50명 이상 송환자의 기록 중 오직 하나의 기록만은 식민지배가 ‘가장 참을 수 없는 형태의 민족적 모욕’이고 일본 패전 소식에 재일조선인이 표출한 환희를 이해했다. 이러한 기록은 기억체제의 빈틈을 보여주고, 또 지속적인 국제연대의 텍스트 발굴이 필요함을 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조선인 사례 또한 역사적 진실과 기억,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민족주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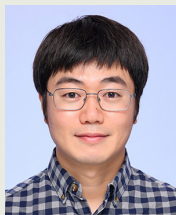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태평양전쟁기 중국에서 일본군 통역으로 복무하거나 중국인에게 고문을 가해 중국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본 패전 후 연합군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재판에 회부돼 BC급 전범이 된 경우, 1948년 여순사건에서 일본군 군복을 입고 나타나 민간인 탄압과 학살을 자행한 경우 등 다양한 집단을 아울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포로 감시원 등 상대적으로 약하게 협조한 이들이 구제되고, 강제동원된 조선인과 같은 하나의 '피해자' 집단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다. 개인의 구제는 좋은 일일 수 있다. 다만 가해자 개인을 피해자 민족으로 치환하는 이분법적 담론의 강화는 문제다. 일본군이었던 조선인에 대한 질문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이 회색지대를 부각시켜 과거사 문제가 흑백논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 4. 맺음말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광복한 지 거의 한 세기가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역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비관적 상황이 아니다. 다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응답자 중에서 한국 역사를 '자랑스럽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 69.1%와 광복 70주년 83.3%에 비해 상승했다. 그동안 숨겨진 역사의 발굴에 기억의 왜곡과 변형까지 역사 문제는 더해져 왔지만, 긍정적 역사 인식은 오히려 높아졌다. 물론 이 반비례 관계는 다른 정치적·사회적 요인을 추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역사 현안의 증가가 부정적 역사 인식만을 키워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

“  
들춰진 과거는 현재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깊은 대화와 입체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고민거리다.  
”

미가 있다. 들춰진 과거는 현재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깊은 대화와 입체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고민거리다.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 이번 학술회의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현명호(玄明昊, Hyun, Myung-h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뉴욕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동’과 ‘지역’을 키워드로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지역 첫 번째 국제도시인 원산의 역사에 관심이 많다.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저술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역사 현안 용어의 번역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4호 2025 가을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차재복  
편집위원 김철기, 박정애, 배현준, 이동욱, 이주연, 전영욱, 홍성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팩스 02)2012-6154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

ISSN 2950-9696